

경북의사회가_만들어가는_따뜻한 이야기

경북의사회

2010 Autumn Vol.39

공지사항

경상북도의회 추계학술대회 개최(사전등록) 안내
의원 외래처방 요양급여비용 가산지급 사업 안내
제30기 기존공제 가입안내



경상북도의사회

Gyeongbuk Medical Association

Broad Clinical Application

신경증/우울증/정신신체장애/
경추증/요통/근수축성두통/수면장애

High Efficacy

anxiety somatization symptoms 감소에
alprazolam보다 더 효과적¹
alprazolam or bromazepam보다 뛰어난
항우울 효과²

Low Tolerance & Dependence

lorazepam과 비교해 적은 내성과 의존성³
REM 수면 rebound를 일으키지 않아 낮은 의존성

Low Hangover

6hr의 짧은 반감기로 수면 후 낮은 hangover

Safety

7%의 낮은 부작용 발현율

The Most Advanced Minor Tranquilizer

DEPAS[®] Tab.

Etizolam 0.25mg / 0.5mg / 1mg

Ref) 1. Pariante et al. *Curr Med Res Opin.* 1989; 11: 543-9 2. Bertolino et al. *J Int Med Res.* 1989; 17: 455-60 3. Sanna et al. *Eur J Pharm.* 2005; 519: 31-42

【원료약품 및 분량】
【성상】
【효능·효과】
【용법·용량】

매 정당 에티졸람(JP)..... 0.25mg, 0.5mg, 1mg
0.25mg..... 필름코팅한 연한 황색의 원형정제, 0.5mg, 1mg..... 필름코팅한 백색의 원형정제
1. 신경증에서의 불안·긴장·우울·신경쇠약증 2. 우울증에 수반하는 불안·긴장 3. 정신신체장애(고혈압, 위·십이지장궤양)에서의 불안·긴장·우울
4. 다음질환에서의 불안·긴장·우울 및 근긴장: 경추증, 요통, 근수축성 두통 5. 다음 질환에 의한 수면장애: 신경증, 우울증, 정신분열증, 정신신체장애(고혈압, 위·십이지장궤양)
성인 1. 신경증, 우울증: 에티졸람으로서 1일 3mg을 3회 분할 경구투여합니다. 2. 정신신체장애, 경추증, 요통, 근수축성 두통: 1일 1.5mg을 3회 분할 투여합니다.
3. 수면장애: 1일 1회 1-3mg을 취침 전 투여합니다. 고령자는 1일 1.5mg까지 투여합니다. 연령, 증상에 따라 적절히 증감합니다.



표지설명
2010 회원 및 가족 등반대회

발행인 이석균 편집인 김종영
 발행일 2010년 10월 28일
 발행처 경상북도의사회
 편집위원장 김재왕
 편집위원 김종영·문기혁·김종규·장태영
 71012-81214 대구광역시 북구 대현2동 404-4
 TEL.(053) 941-7785 FAX.(053) 941-5557
 홈페이지 www.igbma.or.kr
 제작처 선진에드_대구광역시 서구 평리6동 600-5
 TEL.(053) 555-3336 FAX.(053) 556-3273

4 특별기고

경북대학교 함인석 총장

5 포토뉴스·회무소식

2010 회원 및 가족 등반대회
 제25회 전북·경북의사회 친선행사
 의협회장배 시도의사회 축구대회
 의료봉사단 발대식

16 회무단신·회원동정

19 공지사항

경상북도의사회 추계학술대회 개최(사전등록) 안내
 의원 외래처방 요양급여비용 가산지급 사업 안내
 제30기 기존공제 가입안내

25 분회 및 병원소식

32 지역의사회 탐방

안동시의사회 / 울진군의사회

38 회원문예

시_ 꽃 한 그루 화분에 심다·손장락
 왜 사느냐고 묻거든·지성구
 가나의 팀·신명준
 사진_ 가나 소녀의 꿈·신명준
 수필_ 하바롭스크에서 생긴 일·이종규
 나의 인연 이수자·김종규

46 의료봉사기

아프리카, 아직도 가난하고 위험하였습니다·정만진

52 의학 및 건강칼럼

스트레스와 눈·이승우

54 개원이전현황

본회 주요 연중행사 일정

2010. 4. 7	제38회 보건의 날 기념식	2010. 7. 15	제38호 경북의사회보 여름호 발간
2010. 4.	제37호 경북의사회보 봄호 발간	2010. 9.	회원 및 가족등반대회
2010. 4. 25	제62차 의협 정기대의원총회	2010. 10. 16~17	전북·경북의사회 친선행사
2010. 5. 1~2	임원 및 시군의사회장 워크숍	2010. 10. 28	제39호 경북의사회보 가을호 발간
2010. 5. 2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2010. 11. 7	경북의사회 추계학술대회
2010. 5. 15~16	제32회 경상북도 의사의 날 (학술대회, 친선의 밤, 의학제)	2010. 11. 11	대구경북의사회와 함께하는 TBC무료개안수술
2010. 5. 16	전국의사등반대회	2010. 12.	연말 복지시설 방문
2010. 5.	2010년도 회원정기신고	2011. 1.	제40호 경북의사회보 신년호 발간
2010. 6. 5	의료폐기물 배출자 법정교육	2011. 3.	2010년도 전체이사회
2010. 6. 18	의사 생물테러 대응 역량 강화교육	2011. 3.	2010년도 회무감사
		2011. 3.	제60차 정기대의원총회

미래를 향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경북의사회가 되기를 고대합니다.



청명한 가을 하늘이 높아만 가는 계절에 제39호 「경북의사회보」를 발간하게 된 것을 축하합니다. 그 동안 300만 도민과 함께 하는 건강지킴이로서 도민건강증진과 지역의료계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신 이석균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몇 년 전 우리 대학 입학면접시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왜 의대에 진학하게 되었느냐?”는 질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슈바이처와 같은 훌륭한 의사가 되어 어려운 사람을 돕고 싶어 지원하게 되었다.”고 대답하였습니다. 높은 연봉이나, 사회적 명예, 부모님의 기대 등과 같은 소위 속물적인 대답이 없어 내심 다행이라고 생각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이 훗날 의료 현장에서 초심을 잃지 않고 슈바이처 혹은 그와 비견될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우리 사회가 좀 더 아름다워질 수 있기를 기원했습니다.

존경하는 경북의사회 회원 여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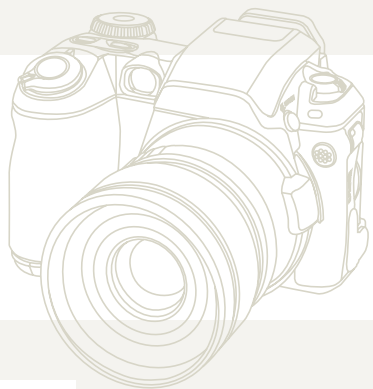
여러분께서는 질병과 장애로 고통 받고 있는 도민들의 곁에서 참다운 인술을 펼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천재지변 및 인재에 따른 의료봉사 및 성금지원 등을 통해 사회에 봉사하고 기여하는 값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경상북도의회 학술상’을 제정하여 회원들의 의학에 대한 연구의욕을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러한 도민 건강향상을 위한 노력과 의학발전을 위한 뜨거운 연구의욕은 우리 사회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경북대학교는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사람에 대한 집중된 투자’를 통해 ‘세계를 향한 지식선도대학’으로 우뚝 서기 위해 변화와 혁신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희망하는 미래의 실현은 서로 가슴을 활짝 열고 소통하며, 미래의 목표를 향해 협력하며, 뭉친 힘을 하나로 집중해 나가야만 가능합니다. 경북의사회 회원 여러분들도 우리 대학의 움직임에 뜨거운 관심과 넘치는 성원을 베풀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지역의 중추적인 지도자로서 도민건강증진과 지역의료계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경북의사회의 무궁한 발전과 회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하며, 다시 한 번 회보의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010년 10월
경북대학교 총장 함인석



사진으로 보는 회원 및 가족 등반대회



- 1. 등반대회 개최식
- 2. 이석균 회장의 개회사
- 3. 칠곡 가산 진남문을 출발



4. 팔공산 자락에 위치한
뒤물이 행사장소
5. 가족과 함께 맛있는
산채한정식을...
6. 신은식 고문의 건배사
7. 경주시의회 회원 및 가족들



경북의사회 회원 및 가족 등반대회 칠곡 가산서 개최

청명한 가을 날씨속에 진행된 2010년도 회원 및 가족 등반대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건강증진을 위해 지난 9월 26일(일) 오전 10시 칠곡 동명면 가산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개최된 회원 및 가족 등반대회는 본회 이석균 회장을 비롯한, 정만진 대의원회 의장, 신은식·이원기 고문을 비롯한 회원 및 가족 100여명 참석한 가운데 한형원 기획이사의 진행으로 개최식이 시작됐다.

이석균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맑고 화창한 가을날씨와 더불어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많은 회원 및 가족들이 참석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등반대회를 통해 회원들 상호간에 더욱더 화합하고 체력증진을 위한 시간을 가졌으면 한다' 라고 했다.

또한 정만진 대의원회 의장은 '오늘 회원 및 가족 등반대회를 통해 건강을 챙기고 일선 진료 현장에서 활기를 불어 넣을 수 있는 충전의 시간을 갖자' 라고 축사를 대신하였다. 이어 등반코스 소개와 더불어 기념촬영을 마치고 가산의 맑은 공기를 마시며 등반을 시작했다.

이날 등반코스는 3분류로 나누어 진행되었으

며, A코스로 가산산성 진남문 주차장을 출발하여 정자쉼터까지 왕복 40분 소요 코스와, B코스로 주차장을 출발하여 동문까지 왕복 2시간의 코스, C코스로 주차장 출발하여 중문을 거쳐 가산 바위까지 왕복 3시간의 코스로 이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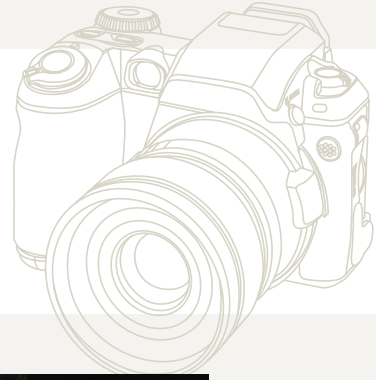
가산은 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과 동명면에 걸쳐 있는 산으로 높이는 901.8m로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은 후 외세의 침략을 막기 위해 산 골짜기를 따라 산성을 쌓았으며, 내성·중성·외성으로 나뉘어져 있다. 또한 대구 근교에서 이름난 관광지로서 팔공산도립공원에 속해 있는 산이다.

가산 등반을 마친 회원 및 가족 참석자는 연화정식당에서 마련된 뒤풀이 행사에서 산채한정식으로 중식을 마친후 참석 내빈 소개와 더불어 신은식·이원기 고문의 건배제의로 등반의 피로를 풀었다.

이날 등반대회는 포항과 경주, 경산에서 버스를 대절하여 참석하는 한편, 도내 각지에서 회원들이 모여 상호간 친목을 다지며 건강을 챙기는 등 회원 및 가족 등반대회를 성황리에 마쳤으며, 참석한 회원에게는 도너츠를 선물로 증정했다.



사진으로 보는
전북·경북의사회 친선행사



1. 김관용 경북지사·최병국 경산시장도 도착하고
2. 드디어 전북의사회 도착
3. 환영의 약속중인 회원
4. 환영사와 축사중인 주요내빈들
5. 친선행사장의 모습





- 6. 운문사의 처진소나무 앞에서 기념촬영
- 7. 향토해설사로부터 청도운문사의 설명을 듣고
- 8. 양도 의사회 기념품 전달
- 9. 드디어 작별의 시간이 오고
- 10. 단체기념촬영



제 25 회

전북·경북의사회 친선행사 성황리 개최

본회 주최로 경산 및 청도 일원에서 내빈 및 양도 의사회 회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전북·경북의사회 친선행사서 화합과 우의 다져

본회와 전라북도의회는 지난 2010년 10월 16일(토)부터 17일(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경북 경산과 청도 일원에서 제25회 전북·경북의사회 친선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하고 양도 의사회간의 화합과 우의를 다졌다.

이날 친선행사에는 본회에서 이석균 회장을 비롯한 정만진 대의원회 회장, 신은식·최종두·이원기·변영우 고문, 임원 및 시군의회회장등 45명이, 전라북도의사회서는 방인석 회장과 양형식 대의원회 회장, 김병주·장명규·천희두·김학경 명예회장 등 38명과 의협 대의원회 박희두 의장, 김관용 경북지사, 최병국 경산시장 등 양도의회사회 10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했다.

이석균 본회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삼성현의 고장 경산을 방문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환영하며, 오늘 행사를 통해 전북·경북의사회 회원들간의 우의를 더욱 돈독히 하고 경산에서의 좋은 추억을 가슴에 담아 가시길 바란다' 라고 했다. 또한 방인석 전북 회장은 '환대해 주

신 경북의사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전북·경북의사회 친선행사를 통해 서로 합심한다면 우리나라 의료계 발전을 가져올 것이다' 라고 답사를 하였다. 이어 의협 대의원회 박희두 의장과 김관용 경북지사, 최병국 경산시장의 축사가 이어진 후 만찬과 더불어 친선행사 시간에는 화합과 우의를 다지는 시간을 마련했다.

만찬과 더불어 이원석 회원의 색소폰 연주와 김동주 회원의 아코디언 연주로 친선행사의 가을밤을 화려하게 수놓았으며, 김병주 전북 명예회장과 신은식 본회 고문의 건배사에서 양도의회사회 친선행사는 88고속도로의 개통을 계기로 지난 1987년 당시 오삼달 경북의사회장과 김병주 전북의사회장과의 격의없는 대화로 자매결연을 맺어 현재까지 양 지역을 번갈아 방문하며 친선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는 설명과 더불어 과거를 회상하기도 했다.

이튿날에는 경북 청도군 운문면에 위치하고 있는 운문사와 청도와인터널을 관광했다. 운문사는 비구니 스님들의 도량으로 국내 최대의 승가대학, 천연기념물 제



180호인 처진 소나무, 30여동의 건물, 7점의 보물, 11명의 고승대덕 영정 등 많은 문화재를 갖추고 있으며, 청도와인터널은 국내 최대의 와인 터널로 감 와인의 숙성에 천혜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친선골프대회는 인터불고경산CC에서 개최됐다.

금년도 친선행사는 본회 초청으로 의료계의 단합과 회원 상호간의 화합의 장을 열었으며, 기념품 전달과 환송사를 끝으로 2010년도 전북·경북의사회 친선행사를

마무리하고 내년에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며 아쉬운 작별을 나누었다.

친선행사서 독도사랑 운동 전개

제25회 전북·경북의사회 친선행사(10월 16일, 경산 석정호텔)에서 독도사랑 운동의 일환으로 독도사랑 티셔츠 입기운동을 펼쳤다.

독도사랑 티셔츠 입기 운동은 고종황제가 1900년 10월 25일 독도영유권칙령을 발표한 것을 기념하여 독도를 바르게 알고 제대로 사랑하자는 의미에서 시작된 운동으로, 이날 전북·경북의사회 친선행사를 맞아 본회에서 티셔츠를 일괄 구입하여 선물로 증정하였다.

이날 본회 이석균 회장과 방인석 전북의사회장, 박희두 의협 대의원회 의장, 김관용 경북지사, 최병국 경산시장 등 주요내빈과 양도 의사회에서 참석한 회원 100여명은 독도사랑 티셔츠를 입고 기념촬영과 더불어 한 마음 한 뜻을 나타냈다.

또한 이틀간 진행된 모든 행사에서 독도사랑 티셔츠를 입고 독도사랑 운동에 앞장서는 한편 양도 의사회의 마음을 하나로 뭉치고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본회와 전라북도의사회는 지난 2006년도 친선 행사에서도 독도를 방문하여 '독도는 누가 뭐라해도 우리땅'이라는 양도 의사회 회원들의 구호제창과 더불어 전북·경북의사회 독도수호 결의대회를 통해 공동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제 1 회 의협회장배 시도의사회 축구대회

- 우승컵은 경기도의사회 -

지난 7월 11일(일) 오전 8시 30분부터 천안 축구센터에서 열린 '제1회 대한의사협 회장배 전국시도의사회 축구대회'가 개최됐다. 오전에는 강한 빗줄기로 수중전이 펼쳐졌으며, 마침 남아공월드컵 축구가 진행되던 때라 천안 축구센터 경기장의 열기 또한 뜨거웠다.

본회에서는 단장에 이석균 회장, 부단장에 이경섭 부회장, 총감독에 박일영 기획이사, 감독에 장기호 회원, 코치에 노영균 회원과 선수 24명으로 구성하여 오전 9시 10분부터 예선전이 진행된 대전과의 첫 경기에서는 아쉽게 0:1로 패했으나 두번째 인천과의 경기에서 7:0으로 대승하였으며, 세번째 경기 제주와는 0:0으로 무승부로 1승1무1패의 결과를 기록했다. 하지만 다승자의 준결승 진출로 인해 아쉽게도 제주에게



1. 경기에 앞서 심판진과의 악수
2. 축구대회 개회식

양보하고 발걸음을 돌려야했다.

이석균 회장은 ‘오늘 경기로 인해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위한 자리를 마련할 수 있었으며, 내년 대회에서도 많은 선수들이 참가하여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자’ 라며 인사말을 대신했다.

전국 규모로 처음 치러진 이날 축구대회는 A·B·C·D조 리그전으로 진행되어 승(勝) 3점, 무승무 1점, 패(敗) 0점으로 점수를 환산하여 동률시 골득실-다득점-승자승-승부차기로 각조 1위를 결정하고 경기시간은 전후반 각각 15분씩 진행됐다.

전국시도의사회에서 각각 1개팀씩 출전해 총 16개팀이 A(부산·대구·전남·충남), B(경기·경남·전북·충북), C(서울·울산·광주·강원), D(제주·인천·경북·대전)조로 나뉘어 예선리그를 펼쳤으며, 각 조 1위팀이 결승리그에 진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또 연령별 선수들이 골고루 참가할 수 있도록 규정을 뒀다.

이날 축구대회는 16개 시도의사회에서 350여명의 선수가 참석하여 대성황을 이루었으며, 예선리그 결과 A조 부산팀(2승 1무), B조 경기팀(2승 1무), C조 서울팀(2승 1패), D조 제주팀(2승 1무)이 각각 조 1위로 준결승전에 올라갔다. 경기팀과 서울팀이 맞붙은 결승전은 손바닥에 땀이 날 정도로 박진감이 넘쳤으며, 제1회 의협회장배 전국시도의사회 축구대회 우승컵은 경기도의사회에 돌아갔다.

| 본회 선수명단 |

단장 이석균 회장, 부단장 이경섭 부회장, 총감독 박일영 기획이사, 감독 장기호 회원, 코치 노영균 회원, 선수 방성호·김병용·서정일·김기환·김성우·이승훈·이창우·박익·최대해·정영철·김재철·이형일·문성욱·성낙일·이신형·박준모·서태규·이영욱 회원



의료봉사단 발대식

- 지역사회와의 소통 계기 마련 -

경상북도내 지역의 저소득 및 의료취약계층 주민의 건강을 돌봄과 동시에 질병예방 및 치료활동으로 300만 도민의 건강지킴이와 의료단체로서의 역할을 다함은 물론 지역사회의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봉사의 손길로 더불어 살아가는 인류사회 공동체를 만들기 위하여 지난 7월 22일(목) 제이스호텔에서 '경상북도의사회 의료봉사단 발대식' 을 가졌다.

이날 김광만 의료봉사단장은 개회사를 통해 '의사들은 진료 자체가 봉사라고 생각한다' 고 운을 띄운 후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에 빠지게 되지만 시군의사회와 지자체의 봉사활동이나 행사에 적극 참여함은 물론 재해나 비상재난시에도 긴밀히 연락하고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오늘은 그런 여러 가지 목적으로 발대식을 갖게 되었다' 라며 시군의사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석균 회장은 인사말에서 '임기 시작부터 의료봉사활동을 위해 생각하고 준비해



봉사활동에 참여하기를 희망하시는 회원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국내 취약지역 무료진료봉사와 이재민 진료 등 봉사활동을 겸한 의료 활동과 해외 재난지역 진료봉사 등의 펼칠 계획이다.

왔으며, 그 동안 체계적인 봉사활동이 없어 아쉽게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 발대식을 계기로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차츰 확대해 나가자' 라고 했다.

또한 정만진 대의원회 의장은 의협 사회협력위원회의 활동사항과 해외 의료 봉사 경험담을 소개하고 체계화된 의료봉사단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박일영 기획이사로부터 의료봉사단 구성관련 경과보고를 통해 △2009년 4월 1일, 본회 사업목표인 지역사회와의 '한 호흡'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통해 환자를 진료하고 각 지역별 의사회를 중심으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다.

△2009년 7월 4일, 임원 및 시군의사회장 워크숍에서 '의료봉사단 구성계획'에 대한 여론 조성 및 논의 △2010년 5월 1일, 임원 및 시군의사회장 워크숍에서 '지역사회와의 소통'이라는 주제로 논의 후 의료봉사단 구성기로 결의 △5월 11일, 김광만 부회장을 의료봉사단장으로 선임(제14차 상임이사회), △6월 18일, 본회 의료봉사단 구성 관련 시군 봉사단장 추천을 통해 7월 22일 경상북도의회 의료봉사단 발대식을 개최하게 되었다고 보고했다.

경주시의사회 이봉구 회장은 사례발표를 통해 경주시의사회의 외국인 무료 진료와 봉사활동, 선한이웃클리닉에서 활동한 의료봉사활동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의료봉사단 추진방안 논의로 △시군의사회와 지자체 행사에 적극 참여하여 지역사회와의 소통 마련 △재난재해시 의료봉사 활동 전개 △체계적인 의료봉사활동을 위한 매뉴얼 작성 △시군의사회의 봉사단원 구성으로 지역의사회 소속감 고취 △유관단체와 연계한 봉사활동 등을 전개기로 의견을 모았다.

경상북도의회 의료봉사단은 시군봉사단장을 포함한 10~15명 내외로 의사 회원으로서 사랑과 봉사정신에 의해 함께 봉사활동에 참여하기를 희망하시는 회원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국내 취약 지역 무료 진료봉사와 다문화 가정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진료와 재해시 이재민 진료와 봉사활동을 겸한 의료 활동과 해외 재난지역 진료 봉사 등을 펼칠 계획이다.

또한 경상북도 재난안전대책 본부를 비롯한 재난안전네트워크, 각시군의사회 및 병원급 의료기관, 기타 유관기관(간호사회, 약사회 등)등과의 협조하여 의료봉사와 관련한 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공보의 및 전공의 대표자 간담회



본회에서는 지난 7월 16일 (금) 오후 7시 대구 안압정에서 공보의 및 전공의 대표 간담회를 개최하고 회원간의 유대강화를 위한 ‘회원간의 소통’을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박일영 기획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가운데 참석자 소개와 더불어 이석균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참석해 주신 공보의·전공의 대표에게 감사드리며, 간담회를 통해 건의사항은 회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으며, 이 간담회가 허심탄회한 자리가 되도록 하자’라고 하였으며, 박영보 경상북도 공중보건의 대표는 ‘의사회와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오늘 간담회로 인해 앞으로도 계속 교류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하였다. 박준형 동국대학교경주병원 전공의 대표는 ‘경북의사회에 감사드리며,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된 것은 전공의 회원들에게 잘 전파하겠다’라며 인사말을 대신하였다. 이어 최근 의료현안과 더불어 공보의 및 전공의 회원들이 본회 회무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향후 상호 교류에도 힘쓰기로 하는 등 전공의·공보의 간담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이날 참석자는 본회에서 이석균 회장과 박일영 기획이사, 박재영 사무처장이, 공보의 쪽에서는 박영보 회장(성주 수륜보건지소)과 기세동 부회장(성주 초전보건지소), 전공의 쪽에서는 박준형 대표(동국대경주병원 내과)가 참석하여 많은 의견을 개진했다.

경북지방경찰청 건강강좌 특강



본회와 경북지방경찰청은 교류를 통한 상호발전을 위해 지난 4월 2일 교류 협정을 체결하고 건강강좌 등 경찰관 직무교육 등에 대한 사업을 추진키로 함에 따라 지난 7월 20일(화) 경북지방경찰청 5

층 대회의실에서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건강강좌를 실시했다.

이날 건강강좌는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 심장내과 김도희 교수가 심장질환 및 동맥경화에 대한 강의와 더불어 질의 답변이 있었으며, 참석한 경찰과 직원으로부터 큰 호평을 받았다.

포항지역 고문 및 병원장 간담회



본회에서는 포항지역 고문단과 종합병원장, 병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7월 8일(목) 오후 7시 포항 바닷속물회식당에서 연석간담회를 개최했다.

이석균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참석해준 고문님과 병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본회 회무에도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라고 하였으며, 이어 김광만 부회장으로부터 참석자 소개와 더불어 최근 의료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이병채·신은식·이원기 본회 고문과 이석균 회장을 비롯한 김광만 부회장, 한형원 기획이사, 신명준 보험이사, 박재영 사무처장이 참석했다.

황석순 포항시의사회장과 송국현 선린병원장, 김용필 포항성모병원 의무원장, 서동권 포항세명기독병원 진료부장, 이태영 사랑병원 부원장, 임경삼 시티병원장, 조기현 여성아이병원장, 정상윤 포항여성병원장이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했다.

이석균 본회 회장 경찰의 날 맞아 행정안전부장관 감사장 수상



본회 이석균 회장은 제65주년 경찰의 날을 맞아 지난 10월 25일(월) 오후 2시 경상북도경찰청 5층 강당에서 진행된

기념식에서 평소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 노력함은 물론 특히 경찰행정 발전에 이바지한 공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장관 맹형규 감사장을 수상했다.

본회와 경북지방경찰청은 지난 4월 2일 협약식을 갖고 경찰청 직원들의 건강증진과 체력관리를 위해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 사업을 추진키로 협약을 체결함은 물론 7월 20일에는 건강강좌를 개최한 바 있다.

변영우 본회 고문 경상북도 도정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경상북도 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 제5조, 경상북도 도정조정위원회 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거 2011년 경상북도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심의를 위한 경상북도 도정조정위원회(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

원으로 본회 변영우 고문이 위촉됐다.

포항성모병원 김기철 과장 해외 SCI급 논문 게재, 지역의료의 우수성 알려



김기철 과장(정형외과)은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Archives of Orthopaedic and Trauma Surgery (정형외과 외상수술집) 해외논문집에 '노인환자에게서 초기에 발견하지 못한 근위 대퇴골 골절이 수술적 치료와 유병률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한 연구논문을 발표했다.

논문에서는 근위 대퇴골 잠행골절이 의심되는 노인환자의 경우 전신단층촬영(MDCT), 자기공명영상 검사(MRI)와 같은 추가적인 검사를 시행하여 초기에 골절을 진단하는 것이 수술적 치료를 줄이고, 유병률을 낮출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었으며, 향후 해당 질환의 임상 치료에 적극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동국대학교 경주병원 서정일 교수 대한간학회 학술연구기금 지원과제 선정



서정일 교수(소화기내과)는 대한간학회 학술연구기금 지원과제에 "독성 간손상 환자의 불안과 우울 성향에 관한 연구 (2010. 5. 1 ~ 2012. 4. 30)"로 연구비 2,500만원을 받게 됐다. (연구팀 : 정신과 사공정규 교수, 산업의학과 이관 교수, 소화기내과 박정배, 김강 교수).

이번 지원금은 대한간학회에서 2월 학술연구기금 지원과제를 하여, 심사를 진행한 후 지난 5월 선정했다. 서정일 교수는 전국 간전문 의사를 회원으로 두고 있는 11개 의과대학 병원의 독성간염 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으며 2010년 세계 3대 인명사전 중 하나인 '마르퀴스 후즈 후' 등재되는 등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동국대학교 경주병원 김도균 교수 미국 부인과내시경학회 싱글포트 수술 채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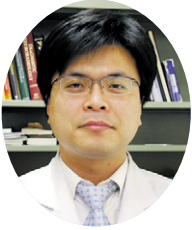


김도균 교수(산부인과)는 최근 미국 부인과내시경학회에 배꼽을 통한 난소 종양 제거 및 남은 정상 난소의 봉합 수술에 관한 동영상을 제출해 단일공법 복강경 수술 중 하나로 채택됐다.

채택된 자료는 난소 기형종인 환자의 직경 7cm의 난소 종양으로 난소 내부에 종양이 자란 경우로 환자가 개복을 원하지 않고 임신할 계획이 있는 여성으로 전통적인 복강경 레이저 시술보다 회복이 매우 빠르고, 수술 흉터가 거의 없는 단일 절개 창 수술(싱글포트)을 시행한 내용이다.

복강경 수술 중 가장 앞선 싱글포트 수술은 조작이 매우 어렵고, 봉합술은 더더욱 술기가 까다로운 고난이도 수술로 김 교수의 미국 부인과내시경학회에 복강경 수술 채택은 의미가 크다.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 배준석 교수 치매예방 공로 인정 경북지사 표창



배준석 교수(신경과)는 치매 예방과 조기 발견에 앞장 선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9월 27일, 영덕 예문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경상북도 치매극복의 날' 행사에서 경상북도지사 상을 수상했다. 배 교수는 투철한 사명감과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정신으로 병원에서의 진료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가 실시하는 치매예방 사업에 구미시 보건소와 함께 참여하여 치매조기진단을 위한 노력에 앞장서고 있다.

구미차병원 서지영 교수 신종플루 대응 관련 복지부장관상



서지영 교수(소아청소년과)는 대구에서 열린 '신종인플루엔자 평가대회'에서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서지영교수는 신종인플루엔자가 지역사회로 확산됨에 따라 전염병 위기단계에 내과와 소아청소년과의 전문의로 대책 본부를 구성하여, 신종인플루엔자에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과 예방조치로 지역 확산을 억제하였고, 조기치료를 지역민 건강증진과 의료 질 향상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수상했다.

구미차병원 성형모 교수 세계 자살예방의 날 맞아 복지부장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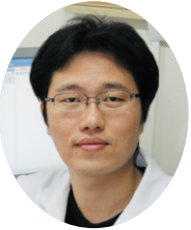


성형모 교수(신경정신과)는 지난 9월 10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2010년 세계 자살예방의 날 기념식에서 자살 예방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한 신경정신과 성형모과장이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성 교수는 2006년부터 구미시보건소 정신보건센터 자문으로 활동하면서, 청소년의 건전한 정신 건강이 건강한 사회의 기틀이 된다는 일념으로 청소년의 건강한 정신 보건을 위하여, 초·중 청소년과 학부모를 구미차병원으로 초청하여 공개강좌 및 상담, 구미시보건소 정신보건센터에서의 상담과 교육, 그리고 구미시 및 인근 지역 초등학교 교사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로 청소년이 성장과정에서 나타나는 행동과 조치 등을 교육하고, 상담으로 비극적인 주검의 선택을 예방하는데 숨은 공로로 수상을 하게 됐다.

구미차병원 장경민 교수 "2010년 세계 100대 의학자"로 선정



장경민 교수(성형외과)는 세계 3대 인명사전중 하나인 영국 케임브리지 국제인명센터(IBC, International Biographical Center)에서 선정한 '2010년 세계 100대 의학자(Top 100 Health Professionals 2010)'에 선정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장 교수는 자가지방이식과 항노화치료의 전문의로 "미세지방 주입시 이식지방세포 생존에 관한 연구"와 "광범위 화상 흉터 교정에 있어서 배양세포의 적응"에 대한 연구 업적을 인정받아 "2010년 세계 100대 의학자"로 선정됐다.

이동규 회원 "PD리포트 시선"(KBS 대구) 출연



지난 8월 울진군의 유일한 산부인과를 개원하고 있는 이동규 회원(이동규산부인과의원, 울진)이 KBS 대구방송총국의 "PD리포트 시선"에 출연하여 도시를 제외한 경북 지역 유일 산부인과의원을 운영하는 이동규 회원을 취재하여 방송했다.

이날 방송은 도시에서 안락한 생활을 꾸려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촌 의료에 사명을 가지고 울진군에 병원을 차렸으나 큰 사명감과 달리 현실은 마취과 전문의가 없어서 산부인과임에도 불구하고 출산이 불가능하고 산모들이 많지 않아 내과 소아과를 겸함은 물론 병원 운영하기조차 어려운 현실이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병원을 운영한다는 내용으로 이동규 회원을 통해 지역 농촌 산부인과 문제를 짚어 보고 해결책을 같이 고민해보고자 하는 내용을 꾸며졌다.

이동규 회원은 전국노래자랑에서도 2회 입상(2002년, 2010년)한 경력이 있고 색소폰연주에도 일가견이 있는 등 다재다능한 회원으로 울진군의사회의 자랑이다.

경상북도의회

추계학술대회 개최(사전등록) 안내

본회에서는 회원연수교육사업의 일환으로 개최되는 2010년도 추계학술대회는 회원 여러분의 임상 진료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연제로 준비하였사오니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의협 연수교육시행규정에 의하면 연간 12평점을 이수토록 되어 있으며, 또한 제4조에 개원의 및 인턴교육병원 이하의 의료기관 봉직의는 해당 시도의사회에서 4평점 이상 이수토록 되어 있으니 의무 연수평점 이수에 차질이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등록은 본회 홈페이지 <http://www.igbma.or.kr> 에서...

1. 추계학술대회 사전등록 신청은 본회 홈페이지의 팝업창 공지를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2. 개인별 평점 확인

의협 홈페이지(www.kma.org) → 로그인 → 회원정보관리 → 상세회원정보 → 연수교육

■ 추계학술대회 세부사항

- 1) 일 시 : 2010년 11월 7일 (일) 14:00 ~ 18:00
 - 2) 장 소 : 경북대학교병원 응급의료센터 10층 대강당
 - 3) 연수평점 : 대한의사협회 6평점
 - 4) 등 록 비 : 사전등록 20,000원, 현장등록 30,000원 / 본회 회원 기준
- ※ 주차장이 협소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 바랍니다.

■ 학술대회 프로그램

시 간	연 제	연 자	소 속
14:00 ~ 14:10	회장인사	이 석 균	경상북도의사회
14:10 ~ 14:40	2010 마약류 취급자 교육	이 정 기	경상북도 식의약품안전과
14:40 ~ 15:10	류마티스 질환의 최신경향	강 영 모	경북의전원 내과학교실
15:10 ~ 15:40	노년남성의 비뇨기계 질환 - 하부요로증상, 호르몬 보충요법, 요로생식기종양을 중심으로	김 덕 윤	대구가톨릭의대 비뇨기과학교실
15:40 ~ 16:00	coffee break		
16:00 ~ 16:30	인수공통 감염병의 이해	임 현 술	동국의대 예방의학교실
16:30 ~ 17:00	외래에서 흔히보는 손의 질환과 외상	우 상 현	더블유병원 수부외과
17:00 ~ 17:30	여성 노화와 갱년기 대책	윤 성 도	계명대 산부인과학교실
17:30 ~ 18:00	다양한 보톡스 주사법의 이용 및 안면주름제거술	안 기 영	안기영성형외과의원

※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의원 외래처방 요양급여비용 가산지급 사업 안내

● 목적

의사가 자율적으로 처방행태를 개선하여 약품비를 절감하면 절감액의 일정부분(20% ~ 40%)을 인센티브로 제공함으로써, 의사의 약품비 절감노력과 비용효과적인 처방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여 의약품 사용량 감소를 통한 약품비 증가율 둔화 및 보험재정 절감.

● 인센티브 지급기준

(1) 인센티브 지급대상 기관

약품비를 절감하고 외래처방 약품비 고가도지표(OPCI)도 감소한 기관

(2) 인센티브 지급률

전년도 외래처방 약품비 고가도지표(OPCI)에 따른 지급률 기준으로 적용

- 전년도 OPCI가 1.00일 때 지급률을 30%를 기준으로 OPCI별로 달리 적용
- 인센티브 지급률은 최소 20.0% ~ 40.0% 범위 내

(3) 인센티브 지급액

인센티브 금액 = 절감액 × 당해 기관의 인센티브 지급률(천원 미만 절사)

- 평가대상 요양기관의 전년도 반기(분기)당 심사결정 공단 부담액의 100분의 10의 범위 내
- 인센티브 금액이 반기당 10만원(분기당 5만원) 미만 등은 지급하지 않음.

● 대상 및 주기

(1) 대상 기관 : 전국의 의과 의원(전체 표시과목)으로 EDI 및 디스켓 청구기관

(2) 대상 상병 및 약품비 : 건강보험 외래 상병에서 발생한 원내·외 약품비

(3) 사업주기 : 반기 단위로 실시

- 제1반기 : 매년 1.1 ~ 6.30일까지 진료분
- 제2반기 : 매년 7.1 ~ 12.31일까지 진료분
- ※ 다만, '10년도에 한하여 분기 적용 ('10. 10. 1 ~ 12. 31 진료분)

● 평가기준(지표)

(1) 외래처방 약품비 고가도지표(OPCI, Outpatient Prescribing Costliness Index)

요양기관의 환자 구성(상병 및 연령)을 보정하여 동일 평가군의 약품비 발생 수준과 비교하여, 해당 기관의 약품비 발생수준을 나타내는 평가지표

- 동일 평가군 : 동일 표시과목, 다만, 개설 기관수가 적은 일부 표시과목은 일반과에 포함

(2) 기대 약품비 대비 실제약품비

- 기대약품비
 - 전년 동반기(분기)의 상병분류별 환자당 약품비를 기준으로 평가대상 반기(분기)의 상병분류별 환자수를 반영한 약품비
- 실제약품비 : 평가대상 반기(분기)의 원내·외 약품비

● 평가방법

- 약품비 절감 여부와 외래처방고가도지표(OPCI) 감소 여부 평가
- 약품비 절감 : 기대약품비 - 실제약품비
- 외래처방고가도지표 감소 : 전년도 동반기(분기) 외래처방고가도지표 - 평가대상 반기(분기) 외래처방고가도지표

● 시행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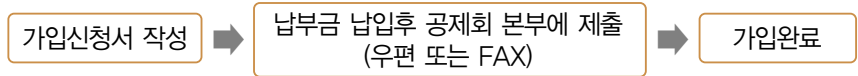
2010. 10. 1.

제30기

기존공제 가입안내 (2010. 11. 1 ~ 2011. 10. 31)

가입절차 및 납부방법

- 가입접수 기간 : 2010. 10. 1 ~ 10. 31
- 가입효력(1년) : 2010. 11. 1 ~ 2011. 10. 31까지
- 가입절차 및 납부방법



- 납부방법 : 지로(GIRO) : 은행지로 7529092 ⇨ 전국은행 이용가능
계좌(은행) : SC제일은행 327-10-016923 [예금주: 사)대한의사협회]
※ 반드시 가입회원명(면허번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문의 및 사건상담

- 공제회 본부 서울/인천/경기/강원/제주 관할
[140-721]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1동 302-75 대한의사협회
☎ 02) 794-2480, 6587, 2474 (ARS 9)
FAX 02) 792-1361, 795-1346
- 대구·경북(주재사무소) ☎ 053) 941-7102

제30기 기존공제 특징

- 보상한도액 : 최대 1천만원
- 실제 진료행위를 기준으로 5개 종별 가입체제 : 「가입종별 및 납부금표」 참조
- 사건처리 절차 : 사건발생/접수 ⇨ 상담/조사/처리(합의중재) ⇨ 합의 ⇨ 심사/보상

가입종별 및 납부금표

종별	준용과목	진료영역 또는 범위	납부금
1종	영상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등	• 주사행위를 하지 않는 경우(주사행위는 2종가입)	70,000
2종	내과, 소아청소년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등	• 기본(외래)진료에 해당하는 것(주로 단순한 일반진료 영역) • 통상적인 주사, 투약의 진료영역 * 1종 진료영역 포함	170,000
3종	외과계열 · 정형외과, 신경외과 · 외과, 성형외과 등 마취통증의학과 정신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비뇨기과	• 외과계의 처치/수술 등의 진료(관절강내 국소주사 포함) • 마취수술에 의한 진료(경막외차단술, TPI 등 통증크리닉 치료 포함) • 성형외과 처치/수술(단, 주관적 불만족 사항 제외) • 정신과 입원진료 • 안과 처치/수술(백내장/녹내장/엑시머레이저/라식수술 등) • 피부과 처치/수술(레이저, IPL, 박피수술 등) * 1, 2종 진료영역 포함	420,000
특종A	산부인과	• 분만 또는 산부인과 처치/수술(13주이하 중절술 포함) * 1, 2, 3종 진료영역 포함	750,000
특종B	산부인과	• 분만 또는 산부인과 처치/수술(14주이상 24주이하 중절술 포함) * 1, 2, 3종, 특종A 진료영역 포함	1,300,000

※ 준용과목과 관계없이 실제 진료하는 진료영역으로 가입종별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Notice 공지사항



본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문 및 각종 공지사항을 아래와 같이 요약 안내합니다.

모든 공문 및 안내사항은 본회 홈페이지(<http://www.igbma.or.kr>)의 의사회소식 → 온라인 공문에 게재되어 있으며, 홈페이지에 가입하지 않은 회원은 가입하시어 유용한 정보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의료장비 전산점검 안내

■ 심사평가원은 그간 심사에 적용되지 않고 있는 장비에 대해 3개월간 시범운영 후 2010년 11월부터 확대 적용할 예정임에 따라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의료기관에서는 장비현황을 심사평가원에 신고하고, 타 요양기관과 공동이용시에는 공동이용계약을 제출

■ 동 의료장비의 연계수가는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공인인증서로그인→Hira plus web→심사종합→의료장비 종합서비스 및 전산점검 장비수가)할 수 있으며, 시범운영 기간 동안 다음의 장비와 연계되는 진료비용을 청구하는 기관 중 미신고기관은 별도 안내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개정고시

■ 복지부는 암 등 중증질환 및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요양급여대상을 규정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을 개정·고시(시행: 2010년 7월 1일)

가) 중증화상환자 본인부담률 인하: 중증화상환자의 본인부담률을 입원 20%, 외래 30~60%에서 입원·외래 5%로 경감함

나) 중증화상환자 등록제 실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적용을 위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 중증화상환자로 신청·등록하여야 함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 홍보

■ 복지부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근로능력판정제도 개선사항에 따라 금년 1월 1일부터 신규 기초수급자에 대하여 '질병·부상자 또는 그 후유증으로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자'의 경우「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근로능력을 판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모든 병·의원(한의원 제외)에서는 내원자가 근

로능력평가를 위한 진단서(음·면·동 제출용)를 요청할 경우 「의학적 평가기준(2010. 3. 4개정)」에 따라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를 발급하여야 함

■ 특히 오는 7월부터는 기존 국민기초수급자에 대한 재판정 실시로 인해 일선 병·의원을 방문하는 수급자가 일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발급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

의료급여 중증화상환자 본인부담 경감

■ 2010년 7월 1일부터 건강보험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이 '중증화상환자'를 포함하여 확대됨에 따라 의료급여 2종 중증화상환자의 경우도 본인부담률이 5%로 인하(가정간호 및 식대포함)

■ 이에 따라 의료급여기관은 건강보험의 중증화상 산정특례 기준(본인부담 경감대상, 시행시기, 유예기간, 산정특례기간, 등록 서식, 특정기호 등 모두 포함)을 동일하게 적용하며, 환자 또는 대리인이 등록 신청서를 관할 시군구청(또는 읍면동)에 제출토록 안내

가) 적용내용

- 「의료급여수가의기준 및 일반기준」(고시) 제17조제2항(건강보험의 중증질환자 산정특례대상을 준용함)

- 식대는 1·2종 중증화상환자 모두 5%로 인하

나) 시행시기: 2010. 7. 1 진료분부터

※ 2010년 10월 30일까지는 등록되지 않은 중증화상환자에 대해 유예기간을 둠

비급여 진료비용 등 고지·게시

■ 의협과 본회에서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등에 관한 의료법 및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사항(2010. 1. 31 시행)"과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방법 지침 및 샘플"을 안내

■ 하지만 일부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를 비치·게시하지 않거나 비치·게시하더라도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사례가 지적되고 있음에 따라 회원들이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 비치·게시와 관련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

의사소견서 전산(포털) 발급 안내

■ 공단대구지역본부는 노인장기요양 신청자가 제출하는 의사소견서의 일부에서 등급판정을 유리하게 받을 목적의 위·변조가 있다는 의견이 등급판정위원회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에 이런 문제점을 예방하고자 의사소견서 전산 발급 방법 안내

가) 의사소견서 관련 문제점

- 서면 발급된 의사소견서를 공단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수정, 훼손
- 주민번호나 질병내역 등 민감한 개인정보의 유출로 사회적 문제 우려
- 장기요양 신청인 대부분이 노약자로서 소견서 제출을 위한 공단 직접 방문에 따른 불편 호소

나) 전산발급 방법 : 요양기관정보마당(<http://medi.nhic.or.kr>)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후 포털 화면에서 의사소견서 작성 후 저장(전송)

다) 협조 요청 사항

- 의사소견서 전산(포털)발급 방법을 안내
- 회원 대상의 교육 프로그램에 의사소견서 전산 발급 방법 포함
- 의사소견서를 부득이 서면으로 발급하는 경우 밀봉 후 봉인처리

라) 문의처 : 053) 650-8922

(대구지역본부 장기요양부)

2010년 상병전산심사 개발 관련 안내

■ 심사평가원은 2003년부터 급성호흡기감염증, 고혈압 등 총 20개 상병에 대해 전산심사를 적용·운영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2010년도에 5개 상병분야(위장염 및 대장염, 눈꺼풀, 눈물기관의 장애, 바깥귀의 질환, 얇은손상 및 열린상처, 연조직장애)에 대한 전산심사를 개발 중에 있으며, “위장염 및 대장염” 상병은 2010년 8월부터 모니터링 실시

■ 동 모니터링은 다발생 심사유형을 분석하는 과정으로 전산심사 적용 전에 검토 내용을 해당 요양기관에 안내 예정

「의료기관 사용 기구 및 물품 소독 지침」 고시 제정

■ 2010년 1월 31일부로 의료법시행규칙 제33조제10호의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의료기관(병원급, 의원급, 조산원)은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처치에 사용되는 기구 및 물품(1회용품은 제외한다)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소독하여 사용" 하도록 준수 사항이 신설

표준 수혈동의서 홍보

■ 질병관리본부는 의료기관의 적정 수혈유도 및 수혈 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지난 2010년 2월 17일부터 7월 23일 동안 수혈관련 의료계 및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표준 수혈동의서를 마련

※ 표준 수혈동의서 다운로드 방법

- 1)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www.cdc.go.kr) → 서식자료 → 자료실 → 지침/서식 → 수혈동의서
- 2) 문의 : 질병관리본부 혈액안전감시과
담당자 : 권정란(02-380-2952)

「의원 외래처방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가산 지급 기준」 고시 제정

■ 개요

의원 외래처방 약품비를 2가지 지표[외래처방약품비고가도지표(OPCI), 기대약품비 대비 실제약품비]로 평가

- 1) 인센티브 지급 및 평가결과 공개
- 2) 인센티브 = 약품비 절감액 × 인센티브 지급률*

*인센티브 지급률 : OPCI 기준으로 차등적용

■ 평가지표

① 외래처방약품비고가도지표(OPCI) : 요양기관의 약품비 발생수준을 나타내는 상대평가 지표. 즉, 같은 진료과 내에서 우리 의원의 약품비 발생수준이 어느 정도 인지를 상대적으로 비교

② 기대약품비 대비 실제약품비 : 전년도 대비 금년도 실제 약품비 현황 비교

2010-2011절기 인플루엔자 관리지침 및 소아접종기준 등 안내

- 「2010-2011절기 인플루엔자 관리지침」 주요 개정내용
 - 예방접종 우선접종 권장대상자 기준 변경
 - 2010-2011절기 신종 및 계절 인플루엔자 백신 예방접종 권장시기 및 접종기준
 - 인플루엔자 실험실 표본감시 방안 조정(2009년 5월 이후 급성호흡기 바이러스를 포함하는 통합감시로 확대, 보건소 제외, 검체수송기관 도입 등)
 - 실험실 표본감시 진단방법 조정(Realtime RT-PCR 도입 등)

■ 2010-2011절기 인플루엔자 소아접종기준 및 주의사항 가) 접종기준

- 만 9세 이상 성인 : 1회 근육주사(사백신) 또는 1회 비강투여(생백신)
- 생후 6개월 이상 만 9세 미만 소아 : 기존 계절인플루엔자 접종기준에 따라 접종하되,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 백신 접종력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는 이전 계절인플루엔자 백신 접종력, 백신종류(생백신, 사백신)와 상관없이 4주 간격으로 2회 접종함

※ 신종인플루엔자 백신 접종력이 없더라도 실험실적 확진(RT-PCR 이나 바이러스 배양법) 받은 경우는 신종인플루엔자 백신을 접종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기존 계절인플루엔자 접종기준에 따라 접종함

나) 호주 CSL사 계절독감 백신 최종원액을 수입하여 완제의약품으로 제조된 (주)한국백신 '플루코박스 PF주'에 대하여 식약청 허가상의 사용상 주의사항을 참고하여 안전한 예방접종 실시

“로스글리타존”성분 함유제제 급여중지

- 로스글리타존 함유제제를 처음 처방받는 환자 : 급여중지
- 로스글리타존 함유제제를 복용중인 환자 : 다른 당뇨병치료제로는 혈당조절이 안 되는 경우 등 다른 당뇨병치료제로 대체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급여인정(급여청구시 처방의사는 로스글리타존 함유제제의 계속 투여

사유를 명시하여야 함)

■ 시행일자 : 2010. 9. 25 진료분부터

교통사고 부재환자 관리실태에 대한 민관 합동 점검실시

■ 국토해양부에서는 교통사고 부재환자의 제도를 개선하고자 관계기관 합동(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으로 교통사고 부재환자 점검체계를 구축하고, 금년 10월부터 각 지방자치단체 주관으로 민·관 합동점검(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 참여)을 실시할 계획이며, 관계 법령을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해서 제도 및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2010년은 제도 위주, 2011년부터는 과태료 부과 예정)

의료기관 급식관리 철저

■ 의료기관의 급식관리 기준(의료법시행규칙 별표6)

- 1) 환자의 영양관리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병원장이나 부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영양관리위원회를 둠
- 2) 환자의 식사는 일반식과 치료식으로 구분 제공
- 3) 환자급식을 위한 식단은 영양사가 작성하고 환자의 필요 영양량을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함
- 4) 환자음식은 뚜껑이 있는 식기나 밀폐된 배식차에 넣어 적당한 온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공급
- 5) 영양사는 완성된 식사를 평가하기 위하여 매 끼 검식(檢食)을 실시하며, 이에 대한 평가 결과를 검식부(檢食簿)에 기록
- 6) 영양사는 의사가 영양지도를 의뢰한 환자에 대하여 영양 상태를 평가 하고, 영양 상담 및 지도를 하며, 그 내용을 기록
- 7) 식기와 급식용구는 매 식사 후 깨끗이 세척·소독하여야 하며, 전염성 환자의 식기는 일반 환자의 식기와 구분하여 취급하고, 매 식사 후 멸균소독
- 8) 수인성 전염병환자가 남긴 음식은 소독 후 폐기
- 9) 병원장은 급식 관련 종사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종사자가 전염성 질병에 감염되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10) 병원장은 급식 관련 종사자에게 위생교육을 실시

분회 및 병원소식

포항시의사회

2010 회원명부 발간



포항시의사회는 지난 10월 7일 전체회원이 수록된 2010 회원명부를 발간했다. 회원명부에는 성명,

의료기관명, 주소, 병원전화, 휴대전화가 가나다순으로 실렸으며, 또한 반원명부가 수록되어 발간했다. 부록으로는 포항시의사회 화칙과 경조규정 의협 및 시도지사회, 행정유관기관 연락처, 색인표가 실렸다.

경주시의사회

추계야유회 개최



경주시의사회 2010년도 추계야유회가 9월 26일 오전 10시 칠곡 동명면 가산 일원에서 경북의사회 등반대회와 겸하여 개최됐다. 회원 및 가족, 간사 포함 20명이 참가한 가운데 황성공원을 출발하여 가산에 도착하여 기념촬영을

한 후 산행과 더불어 연화정식당에서 마련된 뒤풀이 행사에서 산채한정식으로 점심식사를 했다.

이어 팔공산 동화사에 들러 통일약사 여래대불과 더불어 사찰을 둘러보았으며, 이번 야유회에 참가한 회원과 어린이에게 문화상품권을 1매씩 증정하고 행운권 추첨을 통하여 마도훈 회원에게 접이식 자전거를 증정하는 등 성황리에 마쳤다.

제11회 외국인 근로자 무료진료



지난 10월 3일 경주 YMCA에서 주최하는 제11회 외국인 근로자 축제 및 무료진료가 서라벌대학 원석체육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축제에는 약 200여명의 외국인 근로자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축하공연과 장기자랑 등이 펼쳐졌으며 본회와 경주시보건소, 한의사회, 약사회가 참여한 가운데 외국인 무료진료가 진행되어 큰 호응을 받았다.

제5차 확대이사회 개최

지난 9월 14일 오후 7시, 감포별미횃집에서 2010년도 제5차 확대이사회가



개최됐다.

이날 이사회에서 이봉구 회장의 인사과 이홍우 기획이사의 진행으로 회의가 진행되었으며, 2010년도 추계야유회 개최와 경주시의사회 의료봉사단 발족, 제11회 경주YMCA 외국인 근로자 무료진료, 동국대의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환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안동시의사회

제3차 이사회 개최



안동시의사회는 지난 9월 9일 오후 7시, 부속한정식에서 제3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유근·최종두·이한양 회원을 비롯한 종합병원 진료부장, 임원 및 각 반장 20명 참석하여 진행되었으며, 최근 의료현안과 더불어 향후 의사회 일정 등에 대해 논의했다.

구미시의사회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의 참석



지난 8월 25일(수) 오후 4시 구미보건의료 3층에서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의를 개최하고 구미시 및 선산 읍면지역 아동건강 아토피·천식관련 논의와 건강도시사업 추진 주체와 향후 추진 계획 및 고혈압·당뇨병 관리사업과 합병증 등에 대한 문제에 만전을 기하기로 하는 등 많은 의견을 개진했다.

국가 필수 예방접종사업
간담회의 참석

지난 9월 7일(화) 오후 7시 금오산맥에서 구미시의사회 회장단과 구미시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하고 타시군이나 질병관리본부의 수가 기준을 고려하여 의사회와 보건소의 이견없이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비용 수가를 결정하였으며, 앞으로 구미시나 보건소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적극참여하여 구미보건사업 발전에 최선을 다할것임을 밝혔다.

상임이사회의 개최



지난 9월 30일(목) 오후 7시 30분 구

미시의사회관에서 9월 상임이사회를 개최했다. 상임이사회에서는 10월 전반기 총회에 앞서 주요회무 보고와 향후 회무계획에 따른 논의, 특히 구미 YMCA와 연계된 '지역아동청소년 보호시설 이용아동 보건지원사업'을 관내 종합병원 사회사업팀과 협력하여 공동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으며 향후 그에 따른 진료방향에 대한 세부적인논의를 했다.

경산시의사회

이웃사랑 나눔 물품전달



경산시의사회는 지난 9월 7일 경산시 진량읍 양기리에 위치한 대동시온재활원과 9월14일 경산시 압량면 당리동에 위치한 루도비교의집, 9월 17일에는 경산시 드림스타트를 방문하여 이웃사랑 나눔 물품을 전달하였다.

포항세명기독병원

종합검진 원스톱 서비스



포항세명기독병원이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한 건강증진센터를 최근 완공하고 본격적인 진료에 들어갔다. 이번에 새롭게 문을 연 건강증진센터는 지상 5

층, 연면적 19만1천489㎡(580평) 규모로 건강증진센터와 일반검진실, 특수검진실, 내시경실을 한 곳에 배치해 종합검진 관련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특히 세명기독병원은 건강증진센터 신축과 함께 기본종합검진, 정밀검진, 웰빙검진, MDCT스페셜검진, 프리미엄검진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신체부위별 선택형 특화검진인 심장특화검사, 뇌정밀검사, 치매검진, 소화기검진 등 맞춤형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도입해 자신에게 맞는 종합검진 항목을 본인 선택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중이다.

동국대학교경주병원

인도네시아 해외의료봉사단 파견



경상북도가 주관하는 21세기 새마을운동 국제화 일환으로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주 구농기술군 스마누면으로 의료봉사단을 파견하여 봉사활동을 펼쳤으며, 봉사활동은 경주병원과 경주병원 불교회가 공동으로 진행하였으며 외과 정호근교수(봉사단장), 무구법사스님을 포함하여 총 12명이 의료봉사활동에 참가했다.

이번 봉사단은 내과, 외과, 피부과 등이 참여해 진료와 열악한 현지 의료환경에도 불구하고 8월 1일 출발하여 8월 2일부터 4일까지 파차레조마을에서 지역민 약 1,200명을 진료하고 8월 7일 귀국했다. 또한, 무구지도법사스님은 인도네시아 현지 주민들의 개인위생을 증진하기 위하여 세면도구 약

1,000세트를 준비, 일일이 현지 주민들에게 배부하였고, 의약품과 진료재료를 현지 유관기관에 기증했다.

통도사에서 무료 건강검진



동국대학교경주병원 불교회(회장 산업 의학과 이관 교수)는 스님들의 하안거 결제에 앞서 7월 10일 양산 통도사에서 통도사 선방스님을 비롯하여 내원사, 석남사 및 암자 스님, 종무소 직원 등 130여명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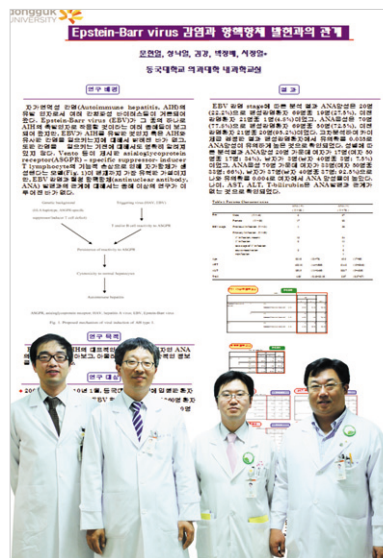
이날 건강검진에서는 내과,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산부인과, 안과, 피부과, 영상의학과 총 7개 진료과와 교직원 50여명이 참여하여 심전도 검사기 2대, 초음파 진단기, 안과 검사장비 등 고가의 의료장비를 준비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

사찰로, 찾아가는 건강강좌개최

지난 9월 6일 운문사 문수선원에서 산부인과 김도균 교수의 “자궁근종”이라는 주제로 찾아가는 건강강좌를 개최했다. 동국대학교병원은 불교 종립병원으로 강원과 선원에서 수행정진으로 건강에 자칫 소홀하여 스님들이 작은 건강 상식만 있었다면 치유가 가능했

던 가벼운 질환이 중환으로 되어 병원을 찾는 경우가 빈번하여 스님들의 건강에 꼭 필요한 전문지식을 마련해 전문의와 함께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를 위하여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9월부터 30인 이상 스님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건강강좌를 개최하고 있다.

소화기내과 교수진 대한간학회 최우수 연구논문상 수상



지난 5월 7일~8일 대구 인터불고엑스코호텔에서 열린 2010년 대한간학회 제16차 춘계학술대회에서 “최우수 연구논문상”을 수상(서정일, 박정배, 김강, 석낙일 문현일 교수) 했다.

이번 최우수 연구논문상은 “Epstein-Barr virus 감염과 항핵항체 발현과의 관계”란 제목으로 논문을 발표하여 수상의 영예를 차지했다.

안동병원

나눔365봉사단, 전국자원봉사대축제 우수상

‘헌 물건에 새 생명을, 이웃에게 사랑을’ 주제로 올해 4월에 실시한 아나바



다 큰장터 봉사활동을 자원봉사 단체에 신청해 제17회 전국자원봉사대 축제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안동병원 나눔 365 봉사단은 4월 24일과 25일 ‘제10회 아나바다 큰 장터’를 열어 재활용을 통한 아름다운 소비문화 확산과 먹거리 장터, 반찬가게의 수익금을 다문화가정, 독거노인, 청소년 장학금으로 기부해 아름다운 나눔 활동을 실천했으며, 아나바다 큰 장터를 운영해 수익금과 성금을 보태 종합사회복지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노인복지센터에 전달했다.

안동병원 정형외과, 세계적 권위자 초청, 인공관절 수술



인공관절 분야에서 저명한 해외 의료진을 초청해 공동 수술을 하고 국내외 인공관절술을 교류 시간을 가졌으며, 초청의료진은 세계 최초 모바일 베어링 인공관절 창시자이자 미국 정형학회 원로인 프레드릭 뷰클(Fredrick Buechel) 박사와 에드워드 리틀존(Edward Littlejohn) 박사로 72세 여자환자를 대상으로 박경찬 명예원장과 공동집도했다.

안동병원은 인공관절 수술 정밀도는

높이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밀 네비게이션 시스템과 우주복 수술 등 첨단기법을 도입해 좋은 효과를 얻고 있다.

저소득환자 47명 무료개안수술

저소득층 환자를 대상으로 무료개안수술을 실시해 47명에게 밝은 빛을 찾아줬다. 무료개안수술 '밝은세상 프로그램'은 안동병원 안과와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가 2008년 하반기부터 2년간 백내장, 녹내장, 망막질환, 기타 안질환을 앓고 있는 저소득층 환자 지원사업이다.

또한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는 9월 8일 대구에서 무료개안수술 보고회를 열고 무료개안수술 사업에 적극 참여한 안동병원에 감사패를 수여했다.

또한 나눔365봉사단 권부옥 단장은 보고대회에 참석해 이웃사랑 성금 1천3백만원을 전달하고,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을 주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양 기관이 공동으로 노력하자고 밝혔다.

일본 오토와 병원과 국경을 넘은 우정



안동병원과 일본 오토와병원(音羽病院) 간에 16년간의 우정이 화제가 되고 있다. 양 병원은 매년 연수프로그램에 직원을 파견해 인력을 교류하고 있으며, 2004년에는 학술세미나를 공동개최해 양국의 의료시스템과 의료인력 교육프로그램의 특징과 개발을 논의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해오고 있다. 올해는 안동병원 강보영이사장 초청으로 오토와 병원 아노(矢野一郎)이사장을 비롯한 경영진이 9월 24일 방한해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하회선유줄불놀이 관람하는 등 지역문화축제를 함께하며 우정을 다졌다.

일본 MK그룹 유태식 부회장 초청강연



지난 9월30일(목) 안동병원 컨벤션홀에서 유태식 MK그룹 부회장을 초청해 월례회 특강을 개최했다.

'MK의 고객만족과 친절서비스'를 주제로 열린 강연에서 유태식 부회장은 "친절은 그 어떤 핵심기술보다 부가가치가 높은 경영에서 가장 소중한 자산으로 친절 서비스가 바로 돈"임을 강조했으며, 또한 그는 "안동병원을 비롯해 한국의 많은 기업들이 친절서비스를 실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밑거름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안동성소병원

생존 한국전 참전 유공가정 찾아 위문

한국전 발발 60주년을 맞이해 안동성소병원은 한국전에 참전한 유공자들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안동보훈지청과 함께 안동지역 90세 이상 참전 유공자 세가정을 찾아 안동지역 특산물과 농산물을 비롯한 생활에 필

요한 보조기 등을 전달하고 위문했으며 가정간호와 요양보호사가 함께 방문해 위문했다.

한편 안동성소병원은 2008년 보훈가족에게 무료개안수술을 가진데 이어 지난해에도 무료로 무릎수술을 실시하는 등 해마다 보훈가족을 위해 다양한 특별지원을 펼치고 있다.

국제도 국왕 외국인진료센터에서 종합검진

파니오라 푸루아니오 국왕(국제도, 남태평양 뉴질랜드의 북동쪽 위치)은 지난 7월 4일 우리나라의 우수한 의료수준과 안동의 뛰어난 전통문화를 체험하기 위해 성소병원에서 종합검진을 받고 안동의 전통문화를 체험했다.

한편 안동성소병원 외국인진료센터는 지역 내 거주하는 외국인들과 다문화 가정들을 위해 지난 2008년 5월 문을 열었으며 금년 6월 보건복지부에 외국인진료 유치 의료기관으로 등록하고 7월초에는 러시아인을 유치하여 종합검진 후 담낭에 돌이 있는 것을 확인한 후 담낭절제술을 시술하기도 했다.

지역응급의료센터 복지부 평가 결과 6회째 우수기관 지정

보건복지부가 2009년도 전국 457개 응급의료기관의 실적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부터 금년 6월 11일까지 평가를 실시한 결과, '급성심근경색환자에 대한 대응'과 '급성뇌혈관질환의 영상촬영 신속성', '중환 응급환자에 대한 적절한 검사를 지속적으로 시행하는지 여부', '급성기 3대 중증 응급질환자의 응급실 평균 재실시간'과 '입원율' 등 5개 질수준 평가지표와 인력, 시설, 장비 등을 종합해 평가한 결과 성소병원이 우수 지역응급의료센터로 또 다시 인정받았다.

총 6회 최우수 및 우수 지역응급의료 센터로 평가받아 경북 중북부지역에서 가장 우수한 응급의료기관으로 인정받았으며 보건복지부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게 됐다.

101주년 성소병원 다양한 이웃사랑 행사 열어

개원 101주년을 맞는 성소병원은 10월 1일 개원 감사예배 및 기념식을 갖고 장기근속자를 표창하는 한편 간호부 전 직원으로 구성된 SALT회 주관으로 이웃사랑 사랑나눔 바자회를 열었으며, 금년 10월부터는 매년 10월을 '감사의 달'로 지정하고 다문화가족을 위한 안동MBC 어린이합창단 초청 음악회 등 많은 행사를 개최했다.

미주 한인 30여명 종합검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는 재미 한인 33명이 한국 의료투어로 안동성소병원에서 종합검진을 받고 안동과 경주, 대구의 다양한 고국 문화를 만끽했다.

이번 한국 의료투어 일행은 10월 5일 인천공항에 도착해 서울에서 열리는 세계한인의 날 행사에 참가하고 곧바로 안동시 도산면에 소재한 한국국학진흥원 내 국학문화회관에서 여장을 풀고 6일 아침부터 성소병원이 마련한 외국인전용 특별프로그램의 종합검진을 받게 된다.

제11회 간의 날 기념 공개강좌

제11회 간의 날을 기념해 안동시민을 위한 간질환 공개강좌를 10월 4일(월)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가톨릭상지대학교 소피아관에서 개최했다.

대한간학회에서 주관하고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안동성소병원 박승국 병원장(소화기내과), 계명대 명예교수와 경북의대 권영오 교수(소화기내과), 동국대 의대 서정일 교수(소화기내과)의 강의를 통해 간질환의 예방과 치료 등에 관하여 궁금증을 풀어주고 간질환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차의과학대학교부속 구미차병원

흉부외과 김덕실·김성완 교수 하지정맥류 수술 2,000례 달성 공개강좌



흉부외과 교수팀은 '하지정맥류의 치료와 치료 후 관리', '뜸과의 전쟁...다한증의 최신치료법' 주제로 지역주민과 환자들을 위한 공개강좌를 개최하여 참석한 내원객들에게 많은 호응을 받았다. 이날 강좌에서는 하지 정맥류의 정의와 진단 방법은 물론 다양한 치료 방법과 알아두어야 할 예방법을 알기 쉽도록 설명했다.

심혈관센터 1주년 기념 500례 시술 심포지엄

지역 내 최초로 심혈관센터 개소 1주년을 맞이하여, 기념식과 심장 학술 심포지엄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심혈관센

터 개소 1주년 기념식에서 조수호 병원장은 심혈관센터 개소 이후 심장초음파 3,500례, 심혈관촬영 및 심장중재시술 500례를 달성한 것에 대한 소식을 밝히고, 특히 100여명 이상의 환자들이 심혈관 센터를 통해 생명을 구했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차병원이 의과대학 병원의 위상에 걸맞게 지역 주민들의 생명을 구하고 건강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된 심장학술 심포지엄이 개최 되었는데, 국내 심혈관내과 분야에서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대학병원 교수들을 초빙하여 지역 내 내과 개업의들을 포함한 지역 내 의사들에게 최신의 의학정보와 학술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나누는 뜻 깊은 자리가 되었다.

복지부 응급실 의료서비스 최우수기관 선정



보건복지부는 전국 457개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2009년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에서 지역에서 유일하게 차의과학대학교 부속 구미차병원이 "최우수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선정됐다. 구미차병원이 6년 연속 "최우수"급 기관으로 선정된 응급의료기관 평가는 응급실의 시설, 장비, 인력을 기본 요건으로 평가하고, 특히 응급의료의 질적수준 상태로는 생명의 시차를 따지는 급성심근경색, 뇌졸중 등 중증질환자가 처음 찾아오는 응급실에서 신속,

정확한 처치로 입원실로 옮겨지는 시간과 급성 뇌혈관질환자의 신속한 영상검사 시간 등을 평가하여 그 충족률에 따라 최우수, 우수, 기타로 등급이 선정되며, 등급에 따라 국가보조금을 지원받아 응급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사용하게 되는 보건복지부에서 국립중앙의료원을 통해 시행되는 공인 평가 제도이다.

최신 체외충격파쇄석기 치료 장비 도입



구미차병원 비뇨기과에서는 요로결석 치료기인 독일 Dornier의 차세대 Compact Delta II를 도입하여 요로결석 치료를 시행하고 있다.

이시술은 외과적 수술이 아니므로 입원할 필요가 없으며, 시술시 통증이 적어 마취하지 않고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수술이나 마취에 따르는 신체적 위험 및 합병증, 후유증이 없으며, 인체 내의 타 장기에는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으므로 환자에게 매우 안전하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간편하게 치료를 할 수 있도록 고안된 장비이며, 또한 Compact Delta II 체외충격파쇄석기의 도입으로 요로결석 환자들은 최고의 쇄석효과로 빠른 시간 내에 완벽하게 치료 할 수 있어 재 치료율이 낮아 치료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주한 美65의무여단 일행 방문 주한 美 제65의무여단 라파엘 디에우

스(Rafael E. DeJesus)의무사령관 일행은 지난 8월 20일 구미차병원을 방문하여, 보다 긴밀한 협력체제 구축으로 의료협약 재확인의 자리를 가졌다. 이번 방문은 라파엘 디에우스(Rafael E. DeJesus)대령이 주한 美 제65의무여단 사령관으로 부임하면서 국내에 의무여단과 의료협약 체결된 병원을 순회 방문하는 것으로 경북에서는 유일하게 구미차병원을 방문하여 병원 현황과 미군 진료시스템을 소개받고, 심혈관센터 등 특성화된 센터 와 병실을 관람하면서 매우 만족감을 드러내는 등 상호 협력체제 강화로 체결된 의료협약을 재확인했다.



2010 차 응급의료 학술 심포지엄 개최

구미차병원 응급의학과 최승필 교수는 병원 7층 강당에서 지난 10월 13일 오후 7시 “차 응급의료 학술 심포지엄”을 열었다.

이번 학술 심포지엄의 주요 내용은 응급의료센터 6년 연속 최우수 병원 선정 기념으로 ▲최승필 교수(응급의료센터장)의 “응급의료센터의 현황과 발전방향” ▲배명환 교수(순환기내과)의 “관동맥 중후군의 표준 진료지침” ▲조덕현 교수(비뇨기과)의 “요로결석의 최신지견”, 그리고 지역 내 응급심장질환에 의한 생존율 향상을 위한 지역사회 및 구급서비스의 이슈에 대한 내용에 관하여 지역 병의원 개원의 대상으로 초청 심포지엄을 마련했다.

지역민을 위한 대장암 공개강좌 개최



지난 9월 30일 병원 7층 강당에서 “대장암의 날”을 맞아 지역민에게 ‘대장암! 바로 알면 이길 수 있습니다.’란 주제로 공개강좌를 열어, 지역민과 환우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대장암 공개강좌는 구미차병원 소화기내과 김국현교수의 “대장암 예방”과 외과 김재오교수의 “대장암 치료 방법”을 주제로 진행됐다.

순천향대학교구미병원

‘희망드림’ 산재 심리재활 프로그램 큰 호응

산재환자들에게 스트레스·불안 해소 및 심리안정 회복을 위해 시행중인 ‘희망키움 심리재활 프로그램’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희망키움 심리재활 프로그램’은 2010년부터 요양기간 1년 미만인 산재근로자를 대상으로 스트레스·정신불안 해소 및 심리안정 회복을 지원하는 전문적 재활서비스 프로그램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주관하는 행사이다.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위탁받아 직접 운영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은 ‘산재환자의 임파워먼트 강화를 위한 뽀뽀(fun fun)한 미소찾기’란 주제로 지난 3월과 6월, 2차례 10명씩의 산재환자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7월 셋째주 순천향병원 회의실에서 3차 프로그램이 진행중이며, 자기애와 긍정적

의식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한 프로그램은 웃음치료, 원예치료, 작업치료, 레크레이션, 개별면담 등 다양한 활동으로 진행됐다.

청송에서 의료봉사로 농촌보건계몽에 힘써



의료봉사로 인간사랑을 실천하는 순천향대학교 부속 구미병원 봉사단으로 의사와 간호사, 의료기사를 포함하여 3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참소솔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무료진료를 펼쳤다. 진료과는 내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가정의학과, 이비인후과로 작은 종합병원을 연상케 하는 규모로 실시됐으며 혈액검사, 혈압, 심전도, X-ray, 골밀도검사, 초음파검사를 실시했다.

금오공과대학교와 협력기관 체결

지난 8월 27일 금오공과대학교 총장실에서 상호협력발전을 도모하고 양 기관의 편의 증진 및 의료발전 기여하고자 협력기관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오천환 병원장, 김규식 사무처장, 금오공과대학교 우형식



총장, 이기수 교무연구처장, 김영학 기획협력처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협약에 앞서 순천향병원에서는 학생 및 교직원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주 1회 대학교 내 진료소를 열어 건강상담과 치료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6월에는 금오공과대학교가 개교 30주년 기념으로 실시한 헌혈행사에서 마련된 250여개의 헌혈증을 순천향병원에 기증하기도 했다.

베트남 부부 미숙아 치료지원

'미숙아'로 태어난 이주 노동자의 아기가 병원과 여러 후원단체의 도움으로 건강을 되찾아 퇴원, 훈훈함을 전해 주고 있다. 지난 8월 25일 베트남 이주노동자 가정에서 태어난 남자 아기는 33주 1870g으로 구미의 한 개인병원에서 태어나 순천향대학교부속구미병원 신생아 중환자실로 옮겨졌으며, 출생 당시 저체중으로 호흡곤란과 방광·요관 역류, 황달 등으로 신속한 처치가 필요했던 미숙아는 인큐베이터 및 산소호흡기에 의존하며 비위관영양, 광선치료, 합병증 치료가 이루어졌다. 이에 병원에서는 직원들의 성금모금과

외부 후원단체의 지원으로 1,200만원이 넘는 치료비를 해결하는 등 치료와 지원이 있었다.

구미강남병원

관절 및 척추전문병원으로 개원



지난 7월 15일 관절 및 척추전문병원 개원식을 가졌다.

이날 개원식에는 남유진 구미시장을 비롯하여 관내 기관단체장과 지역주민, 병원직원 2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수한 의료진과 첨단장비, EMR(전자의무기록시스템)과 PACS(의료영상전달시스템)을 도입해 앞서가는 진료체제를 구축 했다. 환자 중심의 쾌적한 진료실, 환자가 한 곳에서 모든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진료시스템으로, 무릎, 엉덩이, 어깨, 팔꿈치관절 및 척추에 대한 전문적인 진료를 실시하며, 관절경 검사및 수술, 디스크 현미경수술, 추체성형술 등 앞서가는 수술을 실시하여, 병원을 찾은 고객들에게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 하기로 했다. 앞으로 지역주민에게 봉사하는 마음으로 지역민과 함께하는 관절 및 척추전문병원의 역할을 다 하기로 했다.



회원 여러분의 투고를 기다립니다.

본회 회원홍보 및 지역사회와 병원급 의료기관의 주요소식을 잘 빠르게 접할 수 있는 '경북의사회보'를 계간으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회원 여러분의 투고를 요청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 재 : 제한없음(시, 수필, 의학 및 건강칼럼 등)
원고매수 : A4용지 2장 내외(글자크기 12포인트 기준)
보내실 곳 : 홈페이지(www.igbma.or.kr)의 회원마당
→ 회보투고란에 게재(상시제출가능)

기타사항 : •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기념품을 드립니다.
• 의사회보 편집방침에 따라 취지에 맞도록 약간의 원고 수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동.시.의.사.회

안동시는?

흔히 안동을 한국정신문화의 수도라고 부른다. 실제로 안동은 우리나라 유교문화의 원형이 고스란히 남아있을 뿐만 아니라 각 시대별로 불교문화와 기독교, 천주교 등의 본산으로 다양한 역사와 문화유산을 간직하고 있는, 우리나라 역사와 문화의 보고이자 우리 민족정신문화의 가장 중심에 서있는 곳이다.

또한 안동은 일제시대때 독립운동가를 가장 많이 배출한 독립운동의 성지이기도 하다.

현재의 안동은 경상북도 북부지역의 행정·경제적 중심지로 굳게 자리잡고 있다.

또한 주위에 영주, 예천, 의성, 청송, 영양 등이 있는 지역교통의 요지로 전국 어디 서나 접근성이 좋고, 전국에서 가장 많은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어 구석구석 볼거리와 체험거리가 가득한 관광지로 일년 내내 관광객이 꾸준히 방문하는 유명관광지이다.

주말에 가족들과 함께 안동을 방문해서 여러 문화유산을 체험한다면, 무엇보다도 훌륭한 교육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안동시의사회는?

1) 안동시의사회 소개

안동시의사회는 1945년 해방을 맞이하면서 당시 안동군에 거주하는 회원으로 안동 의사회를 결성하였으며 산업화 이전에는 대구를 제외하고는 가장 많은 의사회원을

안동은 우리나라 유교문화의 원형이 고스란히 남아있어
 각 시대별로 다양한 역사와 문화유산을 간직하고 있는
 우리나라 역사와 문화의 보고이자 우리 민족정신문화의 가장 중심에
 서있는 곳이다. 또한 안동은 일제시대때 독립운동을가
 가장 많이 배출한 독립운동의 성지이기도 하다.

보유한 의사회였다. 다른 지역과 달리 아주 일찍 결성된 의사회인 만큼 회원
 간의 단결력과 친분이 강해 지역사회내의 위상이 아주 높다. 타 지역에 비해
 대도시 접근성이 떨어지는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지역내에서 대도시와 동등
 한 의료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 현재 안동시에는
 종합병원으로 1909년에 개원한 안동성소병원과 1912년에 개원한 안동의료
 원, 1982년 개원한 안동병원이 있고, 72개의 개인의원이 있으며 총회원수는
 214명이다.

2) 주요사업

안동시의사회 친선 골프대회를 매년 초여름에 개최하여 개원의와 봉직의
 간에 골프실력을 겨루고 우의를 다지고 있다. 개원의와 봉직의로 구성된 의
 사회합창단은 연말에 자선음악회를 열고 있는데 합창뿐만 아니라 독창, 악
 기연주 등으로 의사회원 및 가족, 일반관객들과 더불어 즐거운 시간을 가지
 며 수익금은 불우이웃을 돕는데 사용하고 있다. 예전에는 주말에 등산대회
 를 했으나 많은 회원들이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지금은 주중에 각 반별대향
 볼링대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있다. 회원모두가 모이는 매년 1회의 정기총회
 와 수시로 여는 월례회, 정기 및 긴급 이사회를 통해 의사회 고유업무를 추
 진하며 반모임 및 과별모임, 청목회와 같은 친목모임을 통해 단합과 학술강
 좌로 깊이를 더하고 있다.

대외적으로 대구지검 안동지청의 의료자문위원으로 참여하고 국민건강보
 험공단 안동지사와 의료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모임을 가지고 있다. 또한 지
 역내에 있는 안동교도소 재소자를 위한 무료의료봉사로 교도소내 의료의 수

안동시의사회 역대회장

- 1대 권영찬
- 2대 김명환 (제동의원)
- 3대 허동섭 (광제의원)
- 4대 남우선 (도립병원장)
- 5대 허동섭 (광제의원)
- 6대 오복수 (오내과의원)
- 7대 이명영 (이명영이비인후과의원)
- 8대 권오현 (권오현내과의원)
- 9대 박무철 (박무철산부인과의원)
- 10대 권오현 (권오현내과의원)
- 11대 박창희 (성누가의원)
- 12대 박양하 (박내과의원)
- 13대 이동일 (이동일외과의원)
- 14대 이수연 (이수연산부인과의원)
- 15대 이승욱 (이소아과의원)
- 16대 최중두 (최정형외과의원)
- 17대 최유근 (최유근안과의원)
- 18대 유동명 (유동명정형외과의원)
- 19대 권세홍 (권방사선과의원)
- 20대 권오일 (중앙산부인과의원)
- 21대 김재왕 (김재왕내과의원)
- 22대 최현욱 (동산정형외과의원)
- 23대 김도형 (현대산부인과의원)
- 24대 김묵환 (김묵환학문외과의원)
- 25대 김광인 (안동제통의원)



준을 높이고 있으며 무료문신제거 사업을 하고 있다.

안동시의사회는 어느 의사회보다 전통과 회원간의 단합을 자랑하고 있다.

특히 정창근 회원(정창근이비인후과의원 원장, 경북 의대 1959년 졸업)은 소록도를 제외하고 가장 큰 나환자 수용시설인 성좌원에 원장(1984년~2006년)으로 재직하면서 나환자촌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소의 받고 있는 나환자의 진료를 지역 의사 회원들과 협력하여 하였으며, 1000명에 이르는 장애인 재활시설인 시온재단의 운영이 IMF 때문에 어려워지자 수십억에 이르

는 사재를 털어 운영을 정상화시키고 발전시켰다. 이를 통해 의사 개인이 할 수 있는 환자 치료 이상의 사회봉사로 주위의 귀감이 되고 있다.

(정리 : 홍보이사 윤영목)

□ 임원명단 : 회장 김광인, 부회장 박무영·배선근, 기획이사 문상웅, 재무이사 양승홍, 홍보이사 윤영목, 보험이사 권준영, 법제이사 김종식, 학술이사 정재연, 이사 윤태권·권세홍·김재왕·장원·최경수·장완섭·김석근·류영호·이상훈·최경돈·정봉수·심상준, 감사 김목환, 윤리위원장 최현욱, 고문 최종두·신현수·박승국·최유근·유동명

안동의 관광지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문화재를 보유한 안동은 구석구석에 볼 것과 체험할 곳이 많은 관광지이다.

1) 안동시 대표관광지별 추천코스

① 도산서원코스

오천군자마을-국학진흥원(유교문화박물관)-경상북도산림과학박물관-도산서원-퇴계종택-이육사문학관-농암유적지

② 하회마을코스 A

체화정-안동한지공장 및 전시관-옥연정사-부용대(나룻배타기체험가능)-겸암정사-하회마을-병산서원

③ 하회마을코스 B

체화정-안동한지공장 및 전시관-하회동탈박물관-하회마을-병산서원

④ 하회마을코스 C

예안이씨충효당-마애선사유적전시관-낙동강생태학습관-풍산한우장터-안동하회마을

⑤ 봉정사코스

제비원-봉정사-천등산등반-학봉종택-학가산온천

⑥ 안동댐코스

임청각(신세동 7층전탑, 탐동종택)-월영교-물문화전시관-공예문화전시관-안동시립민속박물관-아외박물관-안동루

⑦ 임하댐코스

안동대학교박물관-의성김씨종택-안동독립운동기념관-임하댐-호계서원-수애당-지례예술촌

2) 안동하회마을

유네스코세계유산에 등재된 한국의 역사마을 두 곳 중 하나로 조선 중기인 1600년대부터 풍산류씨들이 모여 주택과 서원 등을 건축하고 마을을 조성한 풍산류씨의 집성촌이다.

혈연을 중심으로 한 집성촌의 원형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양반의 주거 문화를 대표하는 양진당, 충효당, 북촌대과, 서원 건축의 백미인 병산서원과 같은 옛 건축물들이 빼어난 건축미를 자랑하고 있다. 하회마을은 주변자연경관과 잘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낙동강의 넓은 강류가 마을 전체를 동, 남, 서방향으로 감싸고 있어 풍수리적으로 명당으로 알려져 있다.

3)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안동은 무형문화재 제69호인 하회 별신굿 탈놀이와 우수한 민속을 바탕으로 1997년부터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을 개최해오고



있으며 6년 연속 최우수축제로 평가받았고, 마침내 2007년부터 전국 1,200여 개의 축제를 대표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대한민국대표축제로 발전을 거듭해 왔다. 9월말부터 10월초까지 10일간 개최되며 이 기간 동안은 안동시 전체가 외국인과 국내관광객으로 북적인다.





울.진.군.의사회

울진군의 역사

1963. 1. 1 법률 제1172(1962. 11. 21)호로 강원도 소속이었던 울진군이 경상북도에 편입됨. 이 때 온정면 본신리는 영양군 수비면에 편입되었다.

1986. 4. 1 대통령령 제11874(1986. 3. 27)호로 울진을 죽변출장소가 죽변면으로 승격, 평해읍 후포출장소가 후포면으로 승격되면서 2읍·8면·1출장소(하당출장소)가 되었다.

그동안 전국에서 가장 소외된 지역이었으나 7번국도의 개통으로 동해를 끼고 있는 북부경북의 중심축이 되고 있다.

울진군의사회 연혁, 활동 및 주요사업

1) 연 혁

울진군의사회는 강원도에서 경상북도로 편입되면서 한익식 선생님께서 초대회장 및 3대회장으로 재임하시면서 기반을 닦으셨다. 그 후 대한의사협회나 경북의사회와의 지역적으로 연계가 수월하지 못해서 뚜렷한 기록을 찾을 수가 없다. 이후 18년 후인 1993년에 박광훈 선생님께서 의사회장을 맡으셨다. 실제로 박광훈 선생님이 몇 대 회장이 되는지 기록상으로는 알 수가 없다.

다만 일반적으로 의사회장의 임기는 3년~4년 추정한다면 박광훈 선생님께서는 9대 회장이 되는 것으로 유추할 수가 있다. 이런 계산이라면 현재는 15대 회장이 될



1. 불영사 계곡
2. 성류굴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울진군의사회는 원로이시며 항상 전체 회원들의 의견을 조율해주는 전기영 선생님을 비롯해서 바쁜 가운데서도 의사회 총무를 보고 계시는 이진홍 선생님, 군내 유일의 산부인과 의원을 개원하고 계시는 이동규 선생님, 안과를 개원하고 있는 김순두 선생님을 비롯해서 각 면소재지에서 의사회 회원들이 지역의료의 일선에서 진료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전임 임호식 회장은 현재 라오스에서 의료 선교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울진군의료원을 비롯해서 보건의료원 및 중앙병원과의 협조는 물론이고 관내의 보건소나 건강보험관리공단 등 유관 기관과의 상호 협조도 잘 이루어지고 있다.

2) 의사회 활동 및 주요사업

울진군의사회는 상반기 및 하반기에 총회를 갖고 회원들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있다. 울진군은 태백간도를 포함해서 동해안을 따라 길게 분포하고 있다.

북부는 울진읍을 중심으로 북면, 서면, 죽변면, 근남면, 원남면의 6개 읍.면을 포함하고 남부는 후포면을 중심으로 평해읍, 기성면, 온정면 등 4개 읍.면을 포함하고 있다. 의사회도 북부와 남부로 나누어서 열고 있으며 상반기와 하반기의 연 2회에 걸쳐 전체 총회가 열리고 있다. 또한 각 지역에서는 매월 1회 정기 월례 모임이 열리고 있으며 회원 상호간의 의견을 조율하고 통신망을 이용해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군정의 협조사항은 물론이며 관내의 공공기관과도 원만한 상호 협조를 하고 있다.

2008년도 울진군 친환경 엑스포가 열리는 동안에 경북의사회의 격려 속

축제 및 볼거리

1) 가볼만한 곳

- 해수욕장
후포해수욕장, 구산해수욕장, 기성망양해수욕장, 망양정해수욕장, 봉평해수욕장, 후정해수욕장, 나곡해수욕장
- 명산, 사찰
통고산(자연휴양림), 백암산, 응봉산, 소광리 울진금강소나무숲, 불영사(계곡)
- 온 천 : 덕구온천(구수곡자연휴양림), 백암온천
- 명승지(관동팔경중 2곳) : 망양정(망양정해수욕장), 월송정
- 기 타
죽변항(“폭풍속으로” 세트장), 봉평신라비(봉평해수욕장), 후포항(오토경기장), 연호정, 해월헌, 해안도로(춌대바위), 민물고기생태체험관, 성류굴, 향암미술관, 왕피천엑스포공원

2) 특산물

생토미, 울진 송이, 울진 대게, 고평미역, 오징어, 은멸치, 골뱅이, 키토산 한우, 딸기

3) 축제 및 이벤트

백암온천 축제, 금강송 송이축제, 평해 남대천 단오제, 후포 대게축제, 월송정 달맞이축제, 성류문화제, 해맞이 행사, 붉은대게(홍게)축제 등

4) 맛 집

- 울진, 죽변 : 닭고을, 이화루, 미꾸라지세상, 사군자, 별난복집, 통나무촌
- 후포 : 선창, 풍경, 들안길, 학교를 숲불가든



울진군의사회 역대회장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해 1963년 1월 1일 강원도에서 경상북도로 편입됨.
1963년 3월에 창립총회 개최

초대회장 한익식 (1962년)
2대회장 서정진
3대회장 한익식 (1974년~ ?)
.....

x대회장 박광훈 (1993~1995)
x대회장 박해룡 (1995~1996)
x대회장 황흥기 (1996~1998)
x대회장 임상진 (1998~2002)
x대회장 김신일 (2002~2005)
x대회장 임호식 (2005~2009)
x대회장 이종규 (2009~현재)

에 울진군의사회에서는 전 회원이 참여하여 의료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2009년도에 울진군의사회는 해외협력 및 의료봉사와 의학교육을 목적으로 몽골국의 “뚜 아이막” 지역과 협상을 하였다. 협상결과 몽골국의 호의적인 반응으로 지난 2010년 7월에 제1차로 해외의료 봉사를 성공적으로 실시하였다. 의료 봉사 후 몽골국에서는 예상외로 적극적인 제안을 해 왔다. 매년 이런 행사를 지속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몽골국에서는 노력을 하겠으며, 울진군의사회에서도 경북의사회와 연계하여 지속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문서화하는 것은 어떤지 의향을 제시하여 왔다. 또한 두 지역사회의 친선과 의료인 상호간의 정보교류를 위한 자매결연을 성사시키자는 제안을 해 왔다. 울진군의사회는 경북의사회에 건의하여 좀 더 활동적인 해외교류를 갖도록 노력할 것이다.

2011년 몽골 의료 봉사 및 의학교육을 위한 행사 역시 계획 중이다. 가능한 한 울진군의사회는 물론이고 경북의사회의 많은 선생님들이 참여 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고자 계획 중이다.

또한 후포항에서 가까운 평해읍 거일리에 경북의사회원님들의 편의를 위해 작고 아담한 펜션을 운영하고 있다. 수익금은 실비를 제외한 전액이 몽골의료봉사의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다.

울진군의사회 회원들은 개인적으로 지역사회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 요양원을 찾아 헌신하는 선생님도 계시고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는 선생님들도 있다. 또한 새로이 출범한 지자체 단체장과 의약인들 간의 간담회가 물밑 작업 중이다.

(정리 : 회장 이종규)

❑ 임원명단 : 회장 이종규, 총무이사 이진홍

알려드립니다

❑ 울진군 의사사회 게스트 하우스 오픈

7번 국도가 말끔하게 정비되고 확장되었습니다. 바야흐로 동해안 시대의 본격적인 막이 올랐습니다. 동해안은 그만큼 지리적으로 개발에서 소외된 지역이었습니다. 교통과 통신의 발달은 현대인들의 시야를 넓혀주고 정보를 공유하고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경북의사회의 회원 여러분께 게스트하우스를 오픈합니다. 호화로운 펜션이나 고급 호텔이 아닙니다.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그냥 평범하고 아담한 독립가옥 오막살이입니다. 동해안의 조용하고 깨끗한 청정지역에서 내일을 향한 시간을 계획하고 이완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합니다. 갯바위에 걸터앉아 동해의 일출을 감상하시면서 조촐한 시간을 갖도록 권해 봅니다. 가족들과 함께 잠시 동안 복잡한 생활에서 탈출해 보세요.



파도소리가 낭만적이고 쓸쓸하고 고즈넉한 해변과 백사장이 그리워지는 계절입니다. 인근 불영 계곡의 아름다운 단풍을 비롯해서 산사의 풍경소리가 그윽해 지기도 합니다. 백암온천이나 덕구온천에서 가족들과 편안하게 주말을 즐기도록 해보세요. 실비를 제외한 수익금은 전액 “몽골의료봉사” 기금으로 적립합니다. 많은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이용안내>

- 일 박 : 5만원 (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물 선물 포함), 주차 시설 완비, 부엌(취사시설완비)겸 거실, 온돌방 1개, 침대 방 1개, 샤워시설, 냉난방완비.
- 연락처 : HP) 011-9820-4635, 010-5501-5012
전화) 054-787-9654, Fax) 054-787-9655
- 주소 : 경북 울진군 평해읍 거일리 306-6(울진대계로 497)

꽃 한 그루 화분에 심다



좋은 그릇 하나 생겼으니
꽃을 심자
화려한 꿈을
이왕이면 매혹적인 향기 있는 꽃으로

꽃을 사려고 왔는데
무엇을 주저 하는가
마음에 들었으면
두말없이 사 버려라

화분에 심어 놓고 보니
마음이 그득하다
만석군
꽃망울은 텅이다.

마음 갈 곳 없어
너 앞에 서거든
노래 불러주렴
함께 부를 아름다운 노래를



손 장 락 원장
손의원(안동)



왜 사느냐고 묻거든

왜 사느냐고 묻거든
그냥 웃지요

마음의 아바타는 날아가는 기러기를 따라서
만년 설산의 호수로 날아간다

많은 영혼 속에서 신에게로 다가 간다
신의 미소속에서 무지개를 본다

감정이란 기쁘고 즐겁다가도
부끄럽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막연하기도 하고 ...

악마는 인간의 마음속에 존재하고
자유로운 영혼은 하늘을 날아 다닌다

밤길에 스치는 바람에 놀라지말고
산사의 종소리를 따라서 멀리 여행을 하고 싶다

신은 가끔 인간을 가지고 장난을 한다
마치 칠팔귀속의 다람쥐처럼

세속적인 사랑이란 슬픔, 괴로움, 고통, 회한 뿐이니
마음의 고향, 그리움, 꿈속의 사랑을 하고 싶다

잠시 눈을 감으니 나비가 날아 다닌다
눈을 뜨니 아무 것도 없다
꿈속의 꿈이다

인디언의 북소리, 와카탕카, 그랜드 캐년, 나바호
붉은 평원에서 떠오르는 태양을 향해 인디언들이 말을 달리고 있다
하늘에 무지개가 떠 있다

불어오는 바람을 따라서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 꿈을 찾아 떠난다



지 성 구 원장
경북외과의원(구미)

가나의 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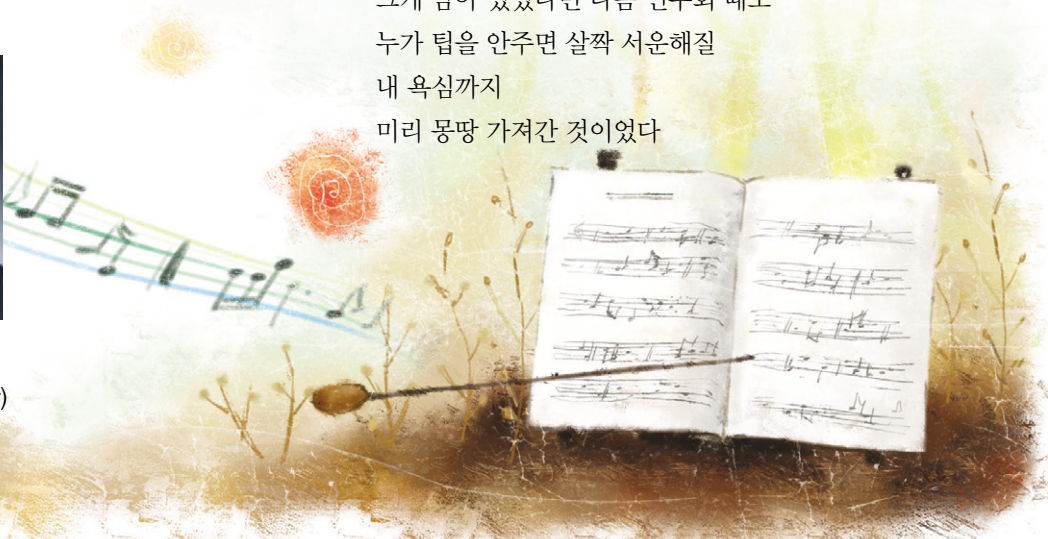
2010년에 아프리카 가나로 봉사활동을 떠났다
 봉사를 하러 가는 것인지 받으러 가는 것 인지는
 분명하지 않았지만
 의료봉사팀의 일원으로 따라간 나는
 진료시작 전날 밤 약품정리, 기구점검 등을 마친 후
 현지 주민들의 행사에 참여해
 서툴지만 기러기 아빠 생활 하는 동안
 틈틈이 익혀온 색소폰 연주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나의 앞 순서로 노래하고 공연하는
 가나 사람들의 숨씨는
 나의 마음을 주눅 들게 했다.
 순서가 되어 무대에 올라갔고
 다행히 연주 솜씨보다
 무거운 악기를 들고 여기까지 온 나의
 노력과 진심만은 통했는지
 많은 가나 청중들이 무대 위로 올라와서 격려해 주었다
 색소폰 벨과 윗옷 주머니에 심지어는 이마에
 동전과 지폐를 넣고 붙여 주었다
 너무 많아 흘린 돈이 바닥에 뒹굴었다
 바람이 불면 저 돈이 날아갈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다
 돈 욕심에 연주가 제대로 될 리 가 없었다



그런데 그 중 한 청년은 끝까지 남아
 바닥에 흘린 지폐를 친절히도 주워서
 연주중인 내 주머니에 넣고 또 넣어 주는 것 이었다
 이러면 이 많은 가나지폐를 다 쓰고 갈려면
 언제 한국에 돌아가지 하는 행복한 고민도 살짝 들었다
 정신없이 했던 연주를 마치고
 같이 가나로 봉사활동을 간 동료들에게 맥주도 한 잔 샀다
 숙소로 돌아오자 그 팀이라는 게 얼마쯤 되는지 궁금해졌다
 아뿔사
 주머니가 텅빈머니 였다.
 착하게도 그 가나 청년은 돈 때문에 생길
 내 고민까지 깨끗이 가져간 것이다
 그게 남아 있었다면 다음 연주회 때도
 누가 팀을 안주면 살짝 서운해질
 내 욕심까지
 미리 몽땅 가져간 것이었다



신 명 준 원장
 신명준외과의원(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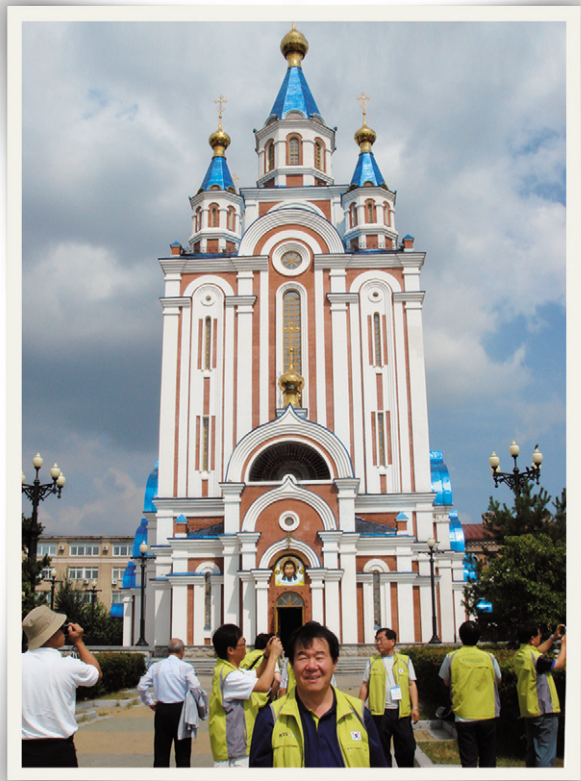




가나 소녀의 꿈
신명준 원장

(2010년 제11회 대한민국 정수사진 대전 특선작)

하바롭스크에서 생긴 일



시베리아는 바야흐로 대륙의 한 여름 날씨를 유감없이 발휘했다. TSR에서 내려 다 본 아무르 강은 몹시 탁했고 물결은 비교적 잔잔했다. 마주칠 때마다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며 밝게 웃던 열차 승무원이 곧 하바롭스크라며 넌지시 알려 주었다. 이제는 두통도 다 사라졌다며 몹시도 고마운 표정을 짓곤 했다. 지루하고 무료하기만 했던 우리 일행은 하차한다는 전갈을 듣는 순간 빠르고 잽싸게 짐을 꾸리기 시작했다. 지루한 열차에서 해방된 희열을 맛보기도 전에 일행은 하바롭스크의 무더운 날씨에 계속 시달림을 받아야만 했다.

세수를 제때에 하지 못하고 샤워를 하지 못해서 거북살스럽기만 했다. 땀 냄새에 찌들고 피죄죄한 얼굴들은 마냥 구겨지고 있었다. 우리일행이 도착한 곳은 사우나 시설이 겸비된 대중목욕탕이었다. 장시간의 열차여행에서 시달린 승객들에게는 새로운 문화인 동시에 TSR 역세권의 유망 업종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었다. 시설은 보잘것없지만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것만으로도 좋은 착안점이 되었다. 비누가 잘 풀어지는 연수에 가까운 물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건 그만큼 오염이 덜 되었음을 의미한다. 샤워 후 개운한 기분으로 로비로 나오다가 나는 구석진 소파에서 일그러진 표정으로 가로누워 신음을 참고 있는 우리 일행 중의 한사람을 발견했다. 이르쿠츠크에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 의무실에서 두 차례나 링거를 맞던 여행사 직원이었다.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히고 헛구역질을 참느라고 표정은 일그러져 있었다. 소화성궤양은 심한 복통과 아올러 수축을 일으켜서 몹시 고통스러워 여행을 계속할 엄두가 나지 않는다. 자신에게 맡겨진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의 괴로움은 또 어떠했을까? 궤양성 수축이 지속되는 동안 환자는 거의 초죽음이 되다 시피 했다. 제산기능이 탁월한 약품과 평활근 이완제 및 안정제 등을 링거에 혼합하여 혈관으로 공



이 종 규 원장
연세가정의학과의원(울진)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히고
 헛구역질을 참느라고 표정은 일그러져 있었다.
 소화성궤양은 심한 복통과 아울러 수축을 일으켜서 몹시
 고통스러워 여행을 계속할 엄두가 나지 않는다.

급을 하면서 공복상태를 유지하도록 했다.

박물관을 관람하고 아무리 강변을 산책하면서 마음은 항상 그 환자에게서 떠나지를 못했다. 점심 식사 후 갑자기 자취를 감춘 환자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수소문을 해도 시원한 대답을 해주는 사람이 없었다. 누군가의 속삭이는 듯한 나지막한 소리가 들렸다.

“환자가 고통스러워 보이던데..... 중환병원으로 간 모양이네. 의사가 왔다는데 링거를 꼽으면 되는데..... 링거를 빨리 꼽지 않고 뭐하는 건지.....”

이 소리를 듣는 순간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아무 역할도 못하는 의료진으로 비쳐진 모습에 그만 숨어버리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기가 막히고 주눅이 들어서 얼굴을 들지 못했다. 의료진에게 말 한마디 없이 현직 병원에서 입원을 했다는 소문이 들리기도 했다. 지금쯤이면 수술을 했을거라는 말도 들렸다. 저녁식사가 끝날 때까지도 정확한 소식을 듣지 못했다. 3개 그룹으로 나뉘어 이동을 하니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보르쉬”의 맛이 텅텅 해지고 보리빵은 더욱 딱딱하고 질기게 느껴졌다. 비프스테이크에도 별로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공연히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니 소심해지기만 했다. 게다가 심사도 많이 뒤틀어졌다. 동행한 직원에게 서운한 마음을 털어 놓으려니

자존심이 많이 상했다. 그 환자의 진단과정이나 투약하는 과정중의 문제점은 없었는지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다. 소화기계통의 약품은 가장 효과가 우수한 약품만을 선택했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된 일은 없었다. 마지막 진료하던 시점에서 위장이나 십이지장의 천공 싸인은 분명 없었다. 심한 위경련으로 진행 될 수는 있었다.

결국 “블라디보스토크”로 향하는 열차에 승차하라는 전갈을 받으면서 이젠 더 이상 그 환자에 연연해하지 않기로 했다. 체념을 하자니 패잔병 같은 느낌이 들었다. 어찌면 의료진에게 미안한 감정이 앞서서 차마 말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애써 해 보기도 했다. 얼마나 급했으면 말도 안 통하는 병원으로 찾아 갔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다. 그 시간까지도 복통이 가라앉지 않았다면 천공이 될 수도 있었으리라는 생각도 해보았다.

참으로 여러 가지 생각에 만감이 교차하는 가운데 서서히 밀려오는 외로움과 고독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조용히 배당된 쿠페로 들어와서 약품을 정리 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두런거리며 땀방울을 두 주먹으로 훔치며 헐레벌떡 쿠페로 뛰어 들어온 불청객 때문에 깜짝 놀랐다.

“선생님! 저 이제 살아 돌아 왔습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객지에서 죽는 줄 알았어요.”

정말로 어처구니가



1. 하바롭스크 광장의 러시아정교 성당
2. 하바롭스크를 개발시킨 총독의 동상



3. 아무르 강변
4. 강변에서 일광욕을 즐기는 시민들

없었다. 마지막 수액을 주입하면서 나는 그 분 회사의 이사님께 정중한 부탁을 드렸다. 가능한 휴식을 취하고 당분간만이라도 안정이 필요하다고... 그는 이사님의 지시대로 식당주인의 양해를 얻어 안정을 취하는 중에 깊은 잠이 들었다고 했다. 한동안 자고 나니 복통은 씻은 듯이 가라앉고 완벽하지는 않지만 회복이 된듯해서 다시 돌아왔다며 연신 주먹으로 이마에 흐르는 땀을 훔치고 있었다. 그렇게도 일그러졌던 표정은 환하게 펴졌다. 그 순간 야속했던 그간의 감정이 일순간에 사라지고 나도 모르게 그에게 깊은 고마움을 느꼈다. 그는 지금 바로 다른 차량으로 블라디보스토크로 이동하라는 지시를 받아서 부득이 하차를 해야 한다며 급히 서둘렀다. 10시간 후에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다시 만나 뵙겠다는 말을 되뇌이며 계단을 뛰어 내려갔다. 이때의 기분을 누가 알까? 결코 금전으로 환산하거나 돈으로도 살수 없는 희열이었다. 열차가 블라디보스토크로 향하는 기적을 울리며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긴 한숨을 크게 들이키고 나니 속이 후련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흐뭇한 웃음이 지어지기도 했다.

“좋은 일이 있으세요?”

“암..... 아주 좋은 일이 있었지..... 허허허허.....”

약품가방을 정리하는 손길이 아주 날렵해졌다. 문득 고개를 들어 창밖을 보니 개찰구 입구에서 열심히 손을 흔들어주는 그와 눈이 마주쳤다. 안도의 웃음으로 답례를 하던 그 순간을 생각하면 지금도 짜릿해진다. 하바롭스크 정거장은 그렇게 으스스한 땅거미 속으로 사라져 갔다. 후일 영문을 모르는 승객 중 한분이 빙긋이 웃으면서 말했다.

“그 가이드 양반..... 썩썩 하던데..... 러시아 병원에 다녀온 모양이죠? 러시아 의술이 좋은 모양입니다.”

유독 우리 국민들에게만 우리 의료계는 겨우 이 정도로만 비춰지고 있을 뿐이었다. 허..... 참 !!!!! 끝.



나의 인연 이수자

어제도 이 아이는 병원 현관 앞에서 다소곳이 나의 퇴근을 기다리고 있었다. 현관을 나와 손을 잡아주기 전에 이 아이가 먼저 움직인 적은 없다. 병원 문을 나서면 함께 강변으로 간다. 강변에서도 이 아이는 절대 나의 손을 놓지 않는다. 그리고 집 앞까지 나를 따라온다. 집에 도착하면 이 아이가 지켜보는 가운데 나 혼자 집으로 들어간다. 일주일에 이런 일이 몇 차례 반복된다.

이 아이를 만난 지는 3년 반 정도 되었다. 처음엔 서로가 어색했지만 곧 같이 다니는 데 익숙해지고 서로의 습관을 잘 알게 되어 이제는 편해진 상태다. 그리 젊지도, 예쁘지도 않고 몸매가 좋은 것도 아니지만 이 아이에게 빠져있는 나를 발견하곤 한다. 이 아이와 함께 있으면 내가 좀 더 젊고 건강해졌다는 느낌을 받는다. 이 아이와 함께 할 때는 절대 차를 타지 않으니 만나는 비용도 거의 들지 않는다. 기름 한 방울도 쓰지 않아야 한다고 믿는 이 아이는 지독한 환경운동가다. 자연스럽게 이 아이와 있을 때는 나도 환경운동에 동참하는 듯한 기분이 들기도 한다. 이 아이라고 해서 전혀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것은 아니다. 가끔은 콧구멍에 바람을 넣어 주기도 해야 한다.

이 아이와의 관계를 눈치 챈 지인 중에는 더 젊고 예쁜 아이를 소개해주겠다는 사람도 있었다. 산을 좋아한다는 그 아이는 보기에 늘씬하고 예뻐다. 같이 산을

다니기에는 내 무릎에 문제도 있고 기백만원대의 명품을 두른 그 아이가 부담스럽기도 했다. 아무래도 내겐 '이수자'가 맞을 것 같아 정중히 거절했다. 이쯤에서 혹시 '이수자'가 아내나 딸의 이름이 아닐까 생각할 수도 있겠다. 미안하지만 아내도 딸도 아니다. 아내는 내가 이 아이와 다니는 것을 알고 있고, 몇 번 보기도 했다. 그런데도 어떤 일인지 무덤덤하게 별 말이 없다. 가끔 밤늦게 이 아이를 만나러 나갈 때는 걱정스런 눈빛으로 바라보는 정도다. 어쩌면 친정아버지랑 다니던 아이가 생각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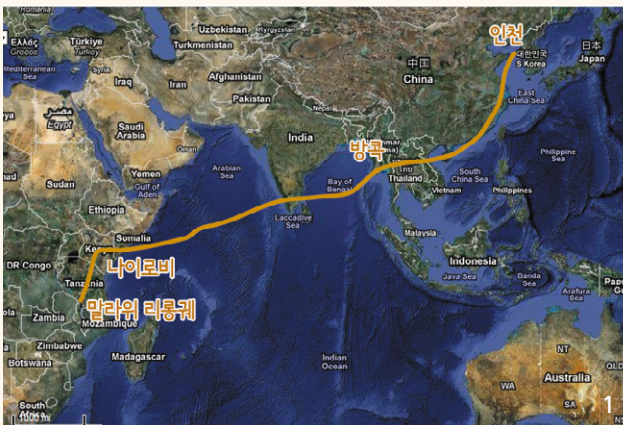
겨울이 되면 이 아이와의 만남은 중단된다. 조금 이기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이 아이가 아무리 좋아도 찬 바람 부는 강변을 다닐 자신은 없다. 그래서 12월이 되면 작별을 고한다. 내년 봄에 만나자고, 올겨울에도 아마 몇 달 이별을 해야 할 것 같다. 그리고 내년 3월이면 이 아이는 어김없이 현관 밖에서 내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사실 이 아이의 이름 '이수자'는 약자다. 원래 이름은 '이동 수단'으로서의 '자전거'라고 한다.



김종규 과장
안동병원 진단검사의학과

[편집자 주] 지난 여름 2주간 넘게 아프리카의 케냐와 말라위에서 의료봉사를 하고 오신 정만진 의장님에게 아프리카 의료봉사에 관한 원고를 요청하였다. 의장님께서 보내온 원고에는 우리에게 생소한 아프리카와 의료봉사를 하면서 겪은 다양한 이야기는 물론 케냐에서의 버스전복 사고로 인한 위험하고 특별한 경험담까지 담겨져 있다. 선생님의 흥미있는 이야기를 3회에 걸쳐 시리즈로 싣고자 한다.

아프리카, 아직도 가난하고 위험하였습니다. (아프리카 의료봉사기 제 1 부)



1. 케냐와 말라위 가는 항공로



정 만 진 의장
경북의사회 대의원회

내게 만일 무슨 일이 생긴다면

2010년 8월 8일 아침, 아프리카로 가기 위해서 집을 나서기 전에,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 편지를 열어보소. 무슨 일이 생기지 않으면 절대로 열어보지 마시고, 절대로.’ 라고 아내에게 말하면서 내 책상 서랍 속에 넣어둔 편지를 가리켰다. 그 편지는 내가 아프리카로 출발하기 전날 저녁

밤늦게까지 아내와 두 딸에게 쓴 편지였다. 나는 이런 편지를 쓴 것이 처음이 아니다. 내가 외국으로 나갈 때면 꼭 이렇게 편지를 써 두고 간다. 그 편지에는 내가 평소에 가족들에게 쉽게 하기 어려운 말과 만일에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어찌어찌 정리해 주면 좋겠다는, 마치 유언장과 같은 내용이 들어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고 가면 한결 마음이 가볍게 느껴진다. 수험생이 공부를 충분히 하지 못했더라도 마지막 정리를 하고 시험에 응하면 마음에 안정이 오듯이 내 삶의 끝내기 정리를 한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말이다.

내가 이번에 아프리카를 가게 된 것은 우연하게 이루어졌다. 지난 봄 경북의 학제가 열렸던 경주 코오롱 호텔 강의실 앞에는 여러 개의 제약회사 선전 부스가 있었는데, 그 중의 하나는 특별한 곳이었다. 굿뉴스 의료봉사회라는 이름을 가진 단체로서 아프리카 의료봉사에 관하여 설명하고 동참하기를 권유하고 있었다. 처음 듣는 이름이라 무슨 이상한 곳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으나 아프리카라는 말에 관심이 생겨났다. 이것이 인연이 되어 그들이 대구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참석하여



아프리카 의료봉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게 되었다. 그러나 아프리카를 갔다 오려면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 항공요금과 체재비 등 적지 않은 경비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조건이고 아프리카라는 곳이 위험지역이라는 인식 때문에 쉽게 결정할 수 없었다. 그러던 중 봉사단의 대구 책임자의 성실함과 그 봉사단의 핵심 임원과 만날 기회가 생겨 결국 아프리카 케냐와 말라위 두 나라에서 16일간 봉사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다.

아프리카 단상(斷想)과 떠나 먼 여로(旅路)

정말 건디기 힘든 짐통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열대야가 계속되던 지난여름, 나는 아프리카로 향했다. “여기도 이렇게 더운데 아프리카에 가서 어찌려고” 하는 주위의 걱정을 뒤로 하고 2010년 8월 8일 오후 5시 40분 대한항공의 방콕 행 보잉777기를 타고 인천공항을 출발하였다. 보잉777기는 좌석마다 비디오 시스템이 장착된 최신형이었고, 좌석간격도 기존보다 넓었다. 맑은 밤하늘을 날고 있는 비행기는 안방 같이 흔들림이 없었고 승무원들은 친절하고 서비스도 좋았다. 우리가 입은 푸른색 유니폼에 쓰여진 medical volunteer라는 글자만 없었다면 맥주잔을 부딪치며 건배라도 하고 싶었다.

나는 좌석을 뒤로 젖히고, 둘째 딸이 긴 여행에 오르는 아빠를 걱정하며 공항에서 전해준 반월형 작은 베개를 목에 두르고 눈을 감았다. 나는 왜 전후의 이라크를 갔고, 4년 넘는 세월을 울릉도에서 살았고, 지금 또 다시 아프리카로 가고 있는지? 삶은 무엇이며, 나의 남은 삶을 어떻게 정리하고 어떻게 끝낼 것인지? 쉽게 답을 얻을 수 없는 삶의 화두를 다시 한번 떠올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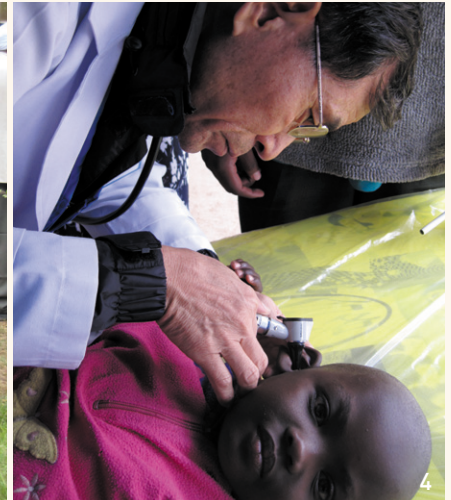
그리고 내 기억 속의 각 가지 아프리카 영상이 떠올랐다. 옛날 초등학교 시절에 봤던 영화 “타잔”에서, 팬티 하나만 걸친 타잔이 줄나무를 타고 날아다니며, “우우우~”하고 소리를 지르며 코끼리 떼를 부르는 모습에서부터 내전과 학살, 그리고 질병과 굶주림에 허덕이며 영양실조에 앙상한 갈비뼈가 튀어나온 아이들이 힘없이 누워있고 얼굴에는 파리 떼가 웅잉거리는 그런 가련한 모습들이 오버랩 되었다.

아프리카를 가고 오는 길은 참으로 멀었다. 그곳을 가는 하늘 길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중동의 두바이를 경유하거나 태국 방콕을 경유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는 방콕을 경유하여 케냐로 가는 항공로를 이용하였는데, 비행시간과 대기시간을 합하여 갈 때는 케냐수도 나이로비(Nairobi)까지 25시간, 올 때는 말라위 수도 리롱웨(Lilongwe) 숙소에서 출발하여 대구 우리집까지 도착하는데 무려 45시간이 걸렸다. 아프리카는 참으로 떠나 먼 여로였다.

아프리카의 첫 인상

2010년 8월 9일 오전 6시 3분(현지시간), 우리를 태운 케냐항공의 보잉 767기는 아프리카의 새벽 공기를 가르며 무사히 케냐의 수도 나이로비 공항에 도착하였다. 내 생애 처음으로 아프리카의 공기를 마신 기념할 만한 시각이다. 완벽한 서비스와 깨끗한 실내의 대한항공에서 지저분하고 여기 저기 낡은 흔적이 뚜렷한 케냐항공으로 바뀌 탄지 9시간 30분 만의 일이다.

입국 수속을 하는 케냐 사람들은 세상에 바쁜 것이 없는 양 행동이 느리기만 하여 짜증이 나려고 했지만 아프리카에 왔으면 아프리카 사람답게 행동해야 한다고



- 3. 진료를 기다리는 사람들
- 4. 나 잘 참아요(누워있는 아기를 이경으로 진단)
- 5. 눈이 큰 형제 아이들

스스로를 다독이며 느낌의 철학을 즐기기로 하였다. 아프리카로 보낸 화물은 분실의 위험이 많다고 걱정하였으나 다행히 우리 일행은 물론 나의 여행가방도 무사하였다. 입국수속을 마치고 공항을 나서니 더위는커녕 오히려 서늘함이 느껴졌다. 나이로비는 적도에 위치하지만 해발 1,500m 이상의 높은 곳에 만들어진 도시라서 그러하단다.

우리를 마중 나온 버스를 타고 공항을 벗어나니 아프리카에 온 느낌이 확 들었다. 버스의 겉은 멀쩡하게 보였으나 속은 낡아 빠진 고물이었다. 에어컨이 없음은 물론이고 버스의 계기판이 있어야 할 곳에는 구멍이 뽕뽕 뚫어져 있고 앞 유리창에는 덕지덕지 무엇인가가 붙어 있었다. 300만 명이 모여 산다는 대도시 나이로비지만 도로는 포장제 제대로 되지 않아 먼지가 일어나고 까만 얼굴의 사람들은 아무 곳에서나 도로횡단을 하였다. 신호등이 없는 도로에서 차들이 경적을 울려가며 아슬아슬하게 비껴가곤 하였다. 도로 옆에는 우리나라 60~70년대처럼 난전의 시장이 열리고 있었는데 질서라고는 없는 것 같았다. 이렇게 사람이나 차가 무질서

하고 가난의 흔적이 배어나오지만 크게 짜증을 내거나 욕하는 사람이 없었다.

케냐에서의 첫날 진료

우리는 새벽 6시 3분에 나이로비 공항에 도착하여 입국수속 후 곧 바로 진료현장으로 갔다. 하루 전에 도착한 팀이 진료를 하고 있는 곳에 도착하니 오전 8시 경의 이른 시간이었으나 벌써 100여 명의 환자들이 몇 줄로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 원래 호텔로 가서 짐을 풀고 세수를 하고 쉬는 시간을 가진 후 진료를 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되었으나 아프리카에서는 그럴 여유가 없었다. 우리가 들어갈 호텔에는 빈 방이 없었다. 오늘 체크아웃을 해야 빈방이 생기므로 하는 수 없이 진료현장으로 바로 오게 되었다.

대구에서 출발하여 잠도 제대로 못자면서 비행기와 자동차를 번갈아 타고 와서 피로가 밀려올 줄 알았는데, 진료를 받기 위하여 줄을 서서 기다리는 아프리카 사람들을 보니 피로는커녕 힘이 솟았다. 환자 있는 곳에 의사가 있어야 한다. 아프리카에는 환자들은 많은데 의

대구에서 출발하여 잠도 제대로 못자면서 비행기와 자동차를 번갈아 타고 와서 피로가 밀려올 줄 알았는데, 진료를 받기 위하여 줄을 서서 기다리는 아프리카 사람들을 보니 피로는커녕 힘이 솟았다. 환자 있는 곳에 의사가 있어야 한다.

사와 약품이 부족하다. 그래서 의료봉사단이 오면 대환영이고 환자들이 구름처럼 몰려온다. 나는 세수도 하지 못한 체 물 티슈로 얼굴을 닦고 그곳 월드캠프 행사장에서 아침밥을 먹고 바로 진료를 시작하였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이고 어른이고 진료 과를 불문하고 다치는 대로 환자를 보았다. 그러나 나에게서는 주로 소아청소년과와 피부과 환자가 배당되었다.

케냐는 영국 식민지였기에 영어가 잘 통하였으나 영어를 모르는 사람들도 많았다. 그래서 나는 약사 자격증이 있다는 청년을 통역으로 삼고 환자들을 보았다. 그곳 역시 우리나라와 같이 감기와 위장염 환자들이 많았고 곰팡이에 의한 질환과 먼지로 인한 안과와 알레르기 환자들도 많았다. 평균수명이 짧아서 우리나라와는 달리 노인성 질환은 그리 많지 않았다. 이런 저런 환자들을 정신없이 진료하다 보니 어느덧 하루해가 지고 있었다. 6시간의 시차에 잠도 제대로 못자고 거의 이틀을 강행군 하였으나 크게 피로한 줄은 몰랐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강행군 했다면 죽겠다고 난리를 쳤을지 모른다. 사람은 참으로 환경에 잘 적응하는 동물인가 보다.

에이즈 여인과 한국까지 E-mail consult

진료 첫날 점심 식사를 마치고 돌아와도 여전히 진료천막 앞에는 환자들이 장사진(長蛇陣)을 치고 있었다. 약간은 나른하고 쉬고 싶은 생각이 들었으나 기다리는 환자들의 표정을 보니 게으름을 피울 수가 없다. 또 다시 진료를 시작하는데 선그라스를 낀 여인이 내 앞으로 왔다. 오전 진료 경험이 있어 이제 꽤 자연스럽게 ‘Why do you want to see a doctor?’ 라고 물으니 머뭇거리더니 통역과 현지어로 한참이나 이야기를 한다. 그리고 통역이 말하기를 “이 환자는 AIDS검사를 받고 싶다.”는 것이었다. 다행이 우리 봉사팀에는 AIDS검사 키트를 갖고 있어 우선 에이즈 검사부터 받아보라고

하였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에이즈 양성이라는 검사 결과가 나왔다. 내가 의사로서 처음으로 에이즈 환자를 진료하게 된 것이었다. 내가 울릉의료원장으로 있을 때 군인과 경찰을 상대로 건강강의를 하면서 성병과 에이즈에 대한 것도 포함 하였기에 이론적으로 에이즈에 대하여 좀 아는 편이었다. 그래서 에이즈에 대하여 좀 길게 설명을 해 주고 비타민 처방으로 에이즈 환자의 진료를 끝낼 수밖에 없었다. 우리에게서는 에이즈 치료약이 없었으니 말이다.

바쁘게 진료를 하다 보니 목이 말랐다. 그래서 생수병을 입에 대고 물을 한 모금 마시면서 잠시 쉬는

6. 에이즈 여인





동안 다른 선생님들의 진료활동을 돌아보니 모두들 너무나 열심이였다. 지난해도 아프리카에 왔다는 외과 선생님은 텐트 속에서 이동외과병원처럼 제법 큰 수술을 하고 있었고, 한의사 선생님들은 침을 놓고 있었는데, 침놓는 것보다 침에 대한 설명과 두려움을 없애기 위한 설명이 더 힘들다고 하였다. 치과 선생님들은 이동식 치과 기구를 가져와서 열심히 치료를 하고 있었는데, 아프리카 사람들은 치아의 보존보다 뽑아주기를 원하는 사람이 많다고 하였다. 산부인과 선생님들은 이동식 초음파 기계까지 가져와서 진료를 하고 있었다. 모두들 한 사람의 환자라도 더 진료하고자 하는 의욕에 넘쳐있었다.

잠깐의 휴식과 주위를 돌아보고 오니 뜨거운 천막 아래 내 진료 책상 앞에는 아이들 환자로 가득하다. 그래서 다시 속도를 내어 환자를 보고 있는데, 수심이 가득한 표정의 엄마가 1세 정도의 아이를 품에 안고 내 앞에 나타났다. 그 아이에게는 내가 처음 보는 이상한 형태의 피부질환이 있었다. 스테로이드를 써야 할 환자인지 아닌지 구별도 되지 않아서 다른 선생님들에게 물어보았으나 모두 잘 모르겠다는 것이었다. 그때 사진을 전문으로 찍는 사람이 우리는 찍고 있었고, 어제 봉사단을 지원하는 직원이 노트북으로 업무를 보는 장면이 생각나며 퍼뜩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이 아이의 환부를 사진으로 찍어 한국에 있는 피부과 의사에게 메일로 보내서 consult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 사진사에게 아이의 환부를 여기저기 찍도록 하고 아기 엄마에게는 내일 다시 오라고 알려주었다. 그러나 여기는 아프리카 아닌가, 과연 이 사진을 한국으로 보내서

7. E-메일 컨설팅 하기

답을 얻을 수 있을 만큼 인터넷이 가능할 것인가 하는 회의(懷疑)가 들었다. 그런데 천만다행으로 이 봉사지역 울타리 안에 디지털방송국이 있었다. 그래서 진료를 끝내고 저녁에 그 사진을 USB에 담아 봉사단 직원과 함께 디지털 방송국으로 가서 메일을 보내보기로 하였다.

그런데 어느 피부과 선생에게 보낼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다가 피부과 의사인 경주시 의사회장인 이봉구 선생을 떠올렸다. 그러나 국제 로밍해온 내 휴대폰 전화번호부에는 이봉구 회장의 전화번호가 입력되어 있지 않았다. 무엇인가 꼭 필요하면 국제전화비 걱정도 채면도 염치도 없어지는 가 보다. 그래서 내 휴대전화에 번호 입력이 되어 있는 경주의 백승인 원장에게 국제전화를 하여 내가 지금 이런 저런 사연으로 아프리카에 와 있고, 이런 사정으로 이봉구원장에게 메일을 보내야 하니 이봉구원장에게 지금 당장 연락하여 나에게 e-mail 주소를 알려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도록 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들이 아직도 근무시간인 줄 알았으나 연락하고 시계를 보니 6시간의 시차를 감안하면 오후 10시가 넘는 밤중이었다. 조금 있으니 이봉구원장으로부터 e-mail주소가 담긴 문자메시지가 들어왔다. 두 사람이 얼마나 열성으로 긴급하게 움직였는지 짐작이 갔고 정말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봉사단의 직원과 함께 디지털방송국으로 갔다. 그리고 거기 컴퓨터를 이용하여 USB에 담긴 20여장의 아기 피부질환 사진을 보고 다섯 장 정도로 줄여서 메일에 첨부하기로 하였으나 걱정했던 대로 거기 인터넷 사정이 좋지 않아 두 번이나 전송에 실패하였다. 그러자 봉사단의 직원이 자기가 인터넷 부하가 적은 한 밤중에 자기의 노트북을 이용하여 꼭 메일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였다.

다음 날 직원의 노트북을 이용하여 나의 메일을 검색하니 정말로 이봉구원장으로부터 답장메일이 와 있었다. 경주에서 아프리카까지 메일이 오고 갈 수 있다니 신기하고 놀랍고 고맙았다. 그의 답장에는, 아기의 피부질환은 아토피가 태선화 된 것으로 크게 염려할 병은 아

니라고 하면서 강력한 스테로이드 연고를 바르고 투여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다. 다음날 나는 갑자기 케냐의 시골마을로 진료를 나가게 되어 다른 의사에게 사정이야기를 하여 그 환자에게 처방한 약과 연고를 주도록 부탁하였다. 머나 먼 아프리카에서 메일을 이용한 consult를 할 수 있다니 참으로 좋은 세상이고, 그렇게 하여 한 아기의 진료를 할 수 있음에 큰 보람을 느낄 수 있었다.

케냐의 둘째 날 진료

케냐에서의 우리 봉사팀은 A B C 3개조로 나누어져 있었다. 나는 원래 B조였으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었다. 둘째 날 나는 나이로비 시내의 빈민가에 진료를 나가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으나 안과선생이 본부에 남아야 하는 관계로 갑자기 조가 바뀌었다. 나이로비에서 1시간 정도 차를 타고 가야 하는 치카(Thica)라는 지역의 고등학교에서 진료하는 팀으로 가게 되었다.

우리 팀이 탄 버스가 치카지역의 고등학교에 도착하니 벌써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 있었는데 특히 아이들이 많았다. 엄마가 애기 하나를 업고 둘은 데리고 왔다. 신발을 신지 않은 아이들이 절반 정도 되고, 초등학생 정도의 여자 아이들도 펜티를 입지 않은 아이들이 많았다. 이곳에서는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가 대단히 인기가 있을 것 같았다. 어느 산부인과를 전공한 후배가 아프리카에 자리가 없느냐는 농담성 문자 메시지를 보내왔기에 나는 “환자는 많은데 돈이 없어요.”라는 답장을 보낸 적이 있다. 대부분 감기와 기관지염 환자였으나 폐렴 환자도 있었고, 심한 탈수증에 걸린 3개월 아기도 있었다. 그래서 어렵게 IV route를 확보하여 fluid therapy까지 해 주었다. 흑인들은 정맥이 잘 보이지 않았고, 아이들은 더욱 그러하였으나 경험 많은 간호사들이 잘 처리해 주었다. 몇 개월이나 비가 오지 않은 아프리카의 건기에는 먼지가 대단히 많다. 그래서 하루 진료를 마치고 샤워를 할 때 코를 풀면 까만 코딱지가 나올 정도였다.

진료를 마치고 본부에 돌아오니, 내가 원래 배치되기로 했던 나이로비 빈민가에 간 팀은 아직도 도착하지 않았다. 그들은 오후 10시가 넘는 시간에 돌아와서 하는 말이, 오후 5시 경에 진료를 마치려고 하니 그 지역의 지도자 같은 사람이 현재 출석있는 사람을 다 진료하기 전에는 갈 수 없다며 험악한 표정과 반 협박조의 말을 하여 저녁도 먹지 못하고 늦게까지 진료를 하고 왔단다. 아프리카에는 치안이 불안하여 봉사활동을 하는데도 위험이 따르는 것 같다.

- 다음호에 계속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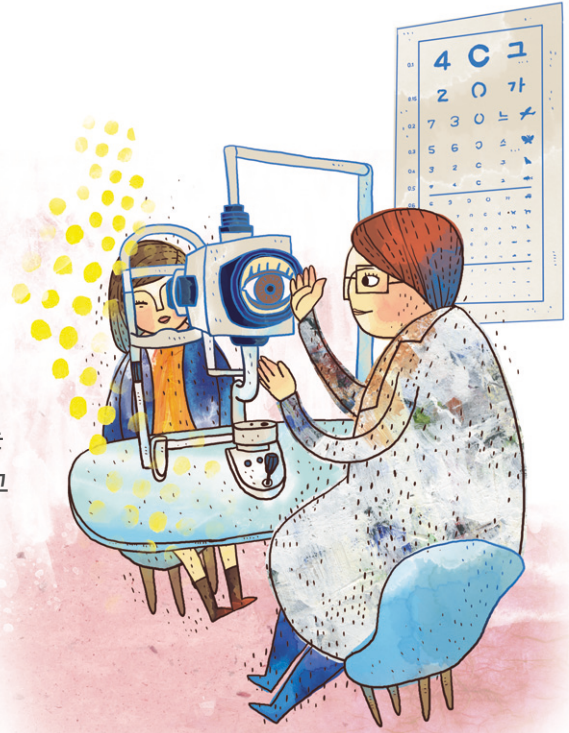


8. 나 어때요? 케냐 어린이들과 함께

9. 케냐 지카지역 진료실 풍경

스트레스와 눈

충분한 휴식, 규칙적인 운동과 함께 과다한 음주, 흡연을 피하는 일상생활의 변화 등을 통해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를 예방하고 해소함으로써 이런 질환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승 우 교수
동국대학교경주병원 안과

현대 경쟁사회는 과거의 생활환경에 비해 일상생활 중에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요인들이 많아졌습니다. 우선 각박한 현실 속에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노력들이 많이 요구됩니다. 또한 고도의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생존을 위한 무한경쟁을 하게 되면서 더 많은 시간을 노동 혹은 직업에 관련된 일에 할애하게 되어 이러한 것들이 스트레스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의료계 또한 보건복지부의 ‘재정안정화대책’ 이후 상당수의 병원 및 의사 회원들의 수익의 감소 및 경영악화로 인하여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여러 선배님, 동료, 후배들이 진료환경에서의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쌓인 스트레스가 건강을 해치기도 합니다. 이러한 스트레스와 관련된 안질환 중에 대표적 질환 중에 하나에 대해 이야기드리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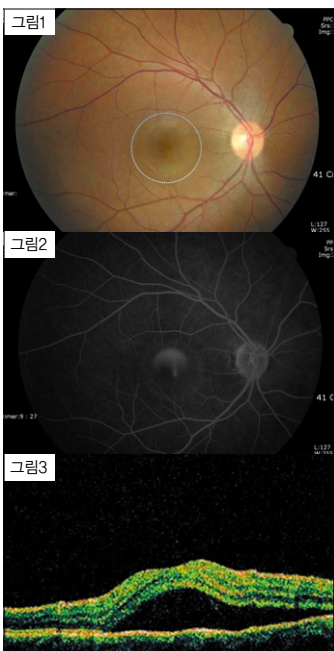
“나 노안(老眼)이 오는 것 같이 눈이 조금 나빠진 것 같아요”

얼마 전 진료실에 한의원을 하시는 A원장님이 최근 신경 쓸 일이 많았는데 2-3일전부터 갑자기 중심부가 흐려 보이면서 사물이 작게 보인다는 증상이 있어 노안이 온 것으로 생각을 하고 방문하셨다.

안과검사상 안저의 황반부 주변에 용기된 병변이 관찰되고(그림 1, 점선으로 병변부위표시) 형광안저혈관조영술에서 굴뚝연기모양으로 위로 올라가는 누출점이 중심부에서 관찰이 되며(그림 2) 빛간섭촬영(Optical Coherence Tomography)검사상 장애성 망막박리소견(그림 3)이 관찰되었다.

A원장님의 진단명은 중심성장액맥락망막병증으로 진단되었다.

먼저 이 질환에 대해 깊고 넘어가면 중심성장액맥락망막병증(Central serous chorioretinopathy; CSC)은 1866년 독일의 유명한 안과의사인 von Graefe에 의해 처음 재발성 중심망막염이란 이름으로 기술이 되었습니다. 이후 1955년 Bennet가 중심장액망막병증이라 명명하고, 비슷한 시기에 Manumenee가 형광안저혈관조영을 통한 장애성 액체의 누출을 기록하였습니다. 1967년 Gass에 의해 진단기준이 확립이 되고 지금의 병명으로 불려지



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 원인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여러 가설 중에서도 스트레스 및 성격특성 등에 의한 심인성 원인들(Psychosomatic aspects)이 가장 유력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차 세계대전 후 젊은 미 해군들에게서 CSC의 발생비율이 높았다고 Harrington 등은 보고 하였고, Werry 등은 다면적 인성 검사를 실시하여 건강염려증, 히스테리, 신경증과의 연관성을, Yannuzzi는 Type A personality 특성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도 보고하였습니다.

Gelber 등은 환자 중 91%에서 증상이 발현하기 전에 정신적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겪었음을 보고하였고 Titti 등은 환자 중 13%가 정신과적 약 복용을 하였다고 보고하였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보고에서도 환자군이 대조군에 비해 스트레스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음을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최근 주변에 심한 정신적 충격이나 사건, 정신과적 문제(불면증 혹은 우울증), 그리고 최근 과도한 업무량에 따른 스트레스로 눈에 이상이 생긴 것 같다고 안과를 방문하신 분에 의외로 많은 분들이 중심성장액맥락망막병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4년간 이 질환으로 내원한 환자를 분석한 기록에 따

르면 2008년 금융위기가 본격화 되면서 2006년에 비해 환자가 30%정도 크게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더욱이 환자의 상당수가 30-50대의 남성분들로 직업군은 주로 회사원, 교사, 전문직, 학생 등이었습니다.

이 병의 자연경과는 보통 치료 없이, 12주 내에 저절로 호전이 되어 시력을 완전히 회복하지만 환자의 30-50%에서는 첫 발병 이후 재발을 경험하며, 이 중 10%는 3회 이상 재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질환 자체가 일반적으로 저절로 호전이 되지만 누출점에 대한 직접치료로 국소레이저 광응고술 혹은 광역학요법 등의 치료를 통해 빠른 회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병에서 가장 좋은 치료는 예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충분한 휴식, 규칙적인 운동과 함께 과도한 음주, 흡연을 피하는 일상생활의 변화 등을 통해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를 예방하고 해소함으로써 이런 질환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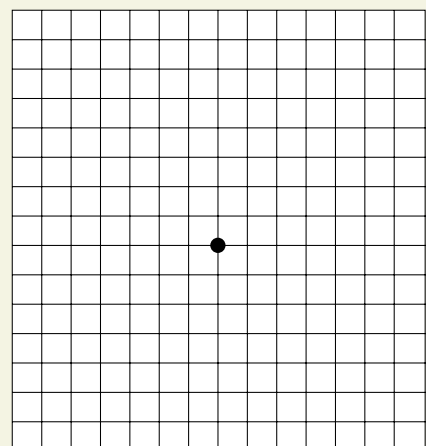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장애성 중심맥락망막병증 및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나이관련황반변성 등과 같은 눈의 황반부 질환의 자가진단법인 암슬러격자를 소개하면서 이 글을 마치고자 합니다.

| 암슬러격자 자가진단법 |

쓰고 있는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를 벗지 않는다.

- ① 밝은 빛 아래에서 33cm정도 띄우고 격자를 본다.
- ② 한쪽 눈을 가리고 격자의 중심점을 똑바로 쳐다본다.
- ③ 시선을 고정시키고 보이는 현상을 기억한다.
- ④ 다른 쪽 눈도 똑 같은 방법으로 해본다.
- ➡ 이때 중심점을 잘 보이지 않거나 초점이 맞추기가 어려울 때, 선이 휘어져 보이거나 끊어져 보이는 증상이 있을 때

위와 같은 증상이 있으면 한 번 안과를 방문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개원을 축하합니다 (2010년 7~9월)



포항시

김 동 현 _ 한양연합의원
(790-801)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리 796-2
T. (054)275-0815 / F. 276-9815

김 우 석 _ 포항태항외과의원
(791-843) 포항시 북구 죽도동 617-5
비전빌딩 2층
T. (054)273-1777 / F. 272-1333

서 유 경 _ 트트소아청소년과의원
(791-717) 포항시 북구 양덕동 1198-1
풍림아이원상가 209호
T. (054)248-8275 / F. 248-8276

이 활 _ 이활의원
(791-817) 포항시 북구 장성동 979
예원빌딩 3층
T. (054)232-2255 / F. 232-2244

경주시

고 현 학 _ 우리들연합마취통증의학과의원
(780-040) 경주시 동부동 129-1 2층
T. (054)777-3677 / F. 777-3678

신 기 석 _ 동산연합의원
(780-951) 경주시 용강동1299-11 2층
T. (054)771-7588 / F. 771-7589

안동시

이 승 훈 _ 토마토의원
(760-310) 안동시 옥동 788-1
T. (054)843-3022 / F. 843-3023

영주시

박 창 선 _ (사)청소년화랑발전육성회
한빛의원
(750-916) 영주시 휴천3동 673-9
T. (054)634-7511 / F. 634-7512

경산시

김 기 환 _ 올바른정형외과의원
(712-837) 경산시 진량읍 신상리
180-1
T. (053)856-0365 / F. 851-0365

이 창 우 _ 올바른정형외과의원
(712-837) 경산시 진량읍 신상리
180-1
T. (053)856-0365 / F. 851-0365

화장품 사용기간 및 보관방법



1. 알파벳 뒤에 숫자가 오면 이는 제조 년 월 일을 의미한다.
M250910는 2010년 9월 25일에 제조되었음을 의미.
2.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쉽게 변질되는 성분으로 지정한 아스코르빈산, 과산화합물 효소, 토코페롤, 레티놀 등이 0.5% 이상 함유되어 있는 제품은 유통기한을 표기 함.
EXP05122010는 2010년 12월 5일 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뜻
3. 권장 사용기간 제품이 가장 좋은 품질을 유지하는 기간을 뜻하며, 표시된 기간 내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는 의미이다.
4. 노화방지나 화이트닝 기능성 제품은 개봉 후 변질 될 우려가 높으므로 사용기간을 제조일로 부터 30개월이내에, 그 외의 제품은 개봉 후 사용기한을 표기한다.
6M, 12M, 24M은 6, 12, 24개월 이내에 사용하라는 뜻

품 목	유기농화장품	일반화장품	보관 및 사용방법
토 너	2개월	1년	서늘한 곳에 보관하고 반드시 화장솜에 덜어서 용기 주변이 오염되지 않도록 해야한다.
모이스처 라이저	2~3개월	1년	뚜껑을 잘 닫아 최대한 공기 접촉면을 줄인다.
페이셜 크림	2개월	4개월	입구가 넓은 용기는 손으로 직접 덜지 말고 반드시 스패츨러를 이용하자.
마스크 팩	2주 정도	5개월	냉장고에 보관하면서 필요 할 때 마다 꺼내 사용한다.
자외선 차단제	3개월	6개월	서늘한 곳에 보관하고 물이 나오거나 오일이 분리되면 사용을 중단할 것.
핸드크림	2개월	5개월	용기 입구가 오염되지 않도록 면봉에 알코올을 묻혀 수시로 닦아준다.
바디로션	6개월	1년	해가 들지 않는 서랍에 보관하면 비교적 오랜 기간 사용이 가능하다.
클렌징 비누	1개월	3개월	필요한 만큼 조금씩 잘라서 사용하고 물기를 완전히 말려서 보관한다.
립글로스	2개월	6개월	입술에 직접 발랐다면 휴지로 닦아서 보관한다.

부신피질호르몬제 처방 NO.1!



부신피질호르몬제

피디^정

메칠프레드니솔론



원료약품의 분량 1정 중

메칠프레드니솔론(U.S.P) ······ 4mg

효능 · 효과

1. 피부질환 : 천포창, 중증 다형성 홍반(스티븐스-존슨증후군), 박탈성 피부염, 수포성 포진양 피부염, 중증 지루성 피부염, 중증 건선, 균상식 육종
2. 알레르기성 질환 : 기관지 천식, 접촉성 피부염, 아토피성 피부염, 혈청병, 계절성 또는 다년성 알레르기성 비염, 약물과민반응
3. 교환성 질환 : 전신성 홍반성 루푸스(루푸스 신염), 전신성 피부근염(다발성 근염), 급성 류마티스성 심염
4. 내분비 장애 5. 류마티스성 장애
6. 안과 질환 7. 위장관계 질환 8. 호흡기계 질환
9. 혈액 질환 10. 악성 종양성 질환 11. 부종성 질환 12. 신경계 질환 13. 기타

보 험 코 드 A21950881

피디^정의 주성분인 **Methylprednisolone**은 기존 Prednisolone보다 **항염효과**가 강하고, 상대적으로 Mineralocorticoid의 작용이 약하므로 부종 발생 등의 부작용이 낮은 부신피질 호르몬제제입니다.

※제품에 관한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664 대륭테크노타운 13차 3층 / TEL:02)2109-3300 • FAX:02)2109-3388



척추관 협착증 환자에게 웃음을 찾아드립니다 리마딘®



우수한 효과는 물론, Limaprost 제제의 안정성 문제까지 해결했습니다

- 요추관 협착증으로 인한 하지통증, 하지저림 등의 증상개선에 효과적이었습니다.¹
- 보행거리를 유의하게 개선시켰습니다.¹
- 6개월 이상 장기투여시에도 안전하고 효과적이었습니다.
- 기존 Limaprost 제제에 비해 안정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²

Freedom of Walking
LIMADIN®
(리마프로스트알파텍스)